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41 1981년6월16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 (416) 533-2361 Tuesday, June 16, 1981

한국일보 토론토

Daily Newspaper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교민골프사상 처음

오석원군 파72 이븐

권위있는 한맘대회 70점대 둘

토론토교민 골프사상 최초로 [illegible] 72점 이븐(Even)을 기록했다.

[illegible]군은 13일 [illegible] 이글골프장에서 열린 한맘골프클럽주최 제5회 [illegible] 골프대회에서 패권 [illegible] 트로피와 [illegible] 외환은행 이강우 [illegible] 상 제공 지상을 받았다.

[illegible] 장남인 오군은 골프경력 5년, 현재 유명 [illegible] 고교 12학년 [illegible] 과거에도 여러차례 교민대회에서 챔피언 또는 [illegible] 입상권 내에 들었었다.

[illegible] 이상훈총영사·이 [illegible] 고종옥 [illegible] 이영현(영 [illegible] 사장) 등 선두로 [illegible] 총58명의 골퍼들은 바람이 약간 불고 비가 오는 [illegible] 좋은 날씨를 맞아 [illegible] 마음껏 [illegible].

주최측의 예정인원은 72명이었으나 대회가 시작되자 16명이 불어났다.

그로스 4등 81점 동점골퍼가 2명이 나와 버디(1점 미만), 파(동점), 프론트 9(첫 9개홀) 점수를 따졌으나 공교롭게도 그래도 점수가 같아 결국 홍진표 한맘골프클럽회장의 제의에 따라 누가 먼저 버디를 했느냐를 기준으로해서 4등 박영철씨, 5등 정용씨로 낙착됐다.

한맘대회는 핸디캡으로 넷을 결정하기 때문에 핸디가 없는 골퍼가 등수에 들기는 어려운 대회이다.

주최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 초년생 골퍼들이 참가한 것을 감안, 2번째 최하점수자에게 주는 어네스트(Honest)상을 크게 만들어 이들의 사기를 돋구었다.

이 상을 받은 한용식씨는 "시작이 좋았다"면서 즉석에서 3백달러를 주최측에 회사했다.

작년 챔피언 이기훈씨는, 작년보다 1점 많은 82점을 쳤다.

◇그로스

챔피언	오석원	72
2	최상수	78
3	정길수	80
4	박영철	81
5	정 용	81

외환은행장상 이기훈 82

◇넷

챔피언	홍진표	84	25	59
2	최충식	93	32	61
3	남영일	96	33	63
4	이호영	90	23	67
5	이상률	87	19	68

외환은행장상
- 차자윤 84 15 69

◇레이디

챔피언	원미자
2	김희선
3	홍미자

●롱게스트 오현표 255YD.
●니어리스트 최충식 7'8"
●어네스트 한용식 128

◇톱·10
오석원 이븐, 한강국 85
정 용 81, 심재환 85
성정수 80, 김홍랑 86
박노욱 83, 곽창수 86
홍진표 84, 김진기 86
차자윤 84

1위 이글스, 2위 성산교회
6팀이 겨룬 교민축구대회

지난12일(토) 쾌청한 주말날씨속에 센테니얼공원 구장에서 벌어진 축구협회 주최 한인친선겸 모국체전 축구선수 제1차선발 축구대회에는 이글스, 천주교회, 성도교회, 성산교회, 한인장로교회, 대학생팀의 6개팀이 출전, A, B조로 나뉘어 예선리그를 치른후, 준결승에오른 각조 1, 2위 팀들로 토너멘트로 좌웅을 겨루었다.

이날 각팀 응원단의 열띤 성원을 힘입고 상오9시30분부터 하오6시40분까지 9시간여에 걸친 열전에서 이글스, 천주교회, 성산교회, 대학생팀이 예선리그를 통과, 준결승에 올랐으며, 또다시 겨뤄 결승에서는 이글스와 성산교회가대결, 1:0으로 이글스에 월계관이 돌아갔다.

축구대회 순위
1위 : 이글스
2위 : 성산교회
3위 : 천주교회
장려상 : 대학생팀
응원상 : 천주교회

준결승부터의 득점은 아래와 같다.

◇준결승
성산교 4:1 천주교
이글스 2:1 대학생회
◇결승전
이글스 1:0 성산교
◇3, 4위전
천주교 5:0 대학생회
◇개인상
최우수선수 : 헨리·홍(이글스)
최우수공격상 : 조성민(성산)
최우수수비상 : 정철주(대학생회)
미기상 : 이임성(성산)

UT이공계 수석 졸업
정경화군, 전체 2등

◇정경화군의 대학졸업기념사진

불과 5년전에 이민온 정경화(26)군이 이공계 부문서 수석으로 졸업했다.

토론토대학 스카보로·캠퍼스에서 컴퓨터학을 전공한 정군은 4년 계속해서 과수석, 이공계1등및 스카보로·캠퍼스 전교 2등으로 졸업했다.

토론토대학 대학원에 진학하는 정군은 9천달러의 장학금을 약속받았다.

지난11일 졸업리셉션 에서 이공계학과(피지칼·사이언스)과장J·E·도브 박사는 졸업수상자 4명을 각1분간씩 소개하는 관례를깨고 약 10분간에 걸쳐 정군을 소개, 칭찬했다.

그는 정군이 76년도에이민온 사실을 지적, "단시일 내에 언어장벽등을물리친 미스터·정은 노력하면 무슨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산 증거"라고 말했다.

학부형들과 내빈들은 감탄의 눈으로 정군을 바라보면서 만장의 박수로서그의 장래를 축복했다.

정기영씨 차남인 정군은 서울대치대 본과 1년을 마치고 토론토에 왔다.

이제껏 교포자녀들이 중학교 또는 고교를 수석졸업하는 일은 있었으나 대학을 특출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스포츠용구 전시 성황
몬트리얼 무역관 주최

(몬트리얼·정관성지국장) 지난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동안 몬트리얼시내 할리데이·인에서 개최된 한국스포츠 용구 전시회에서는 약 150명의 바이어들이 참석, 성공적으로 끝났다.

주최측인 몬트리얼 무역관(관장 정명규)은 특히전시장의 배치및 구도에신경을써, 큰 효과를 보았다.

이번 전시회 결과 계약액은 [illegible]$865,066이다.

참가회사는 배델산업, 부산·다이버, 한영산업, 홀리·산업, 진웅산업, 광성산업 섬유무역, 내원물산, 내아산업, 동국무역등 8개회사였다.

한국 스포츠용구 전시회는 로스·엔젤레스, 시애틀 뱅쿠버를거쳐 마지막으로 몬트리얼에서 각각 개최됐었다.

◇몬트리얼 무역관에서 진행된 한국스포츠용구 전시장에 참가중인 바이어들

둘째아이 가진 여성 중공, 공직서 해고

(북경)북경북부의 한 여성공무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부가 자녀 한명만을 두기로 한 산아제한운동에 위반, 두번째 아기를 낳은 혐의로 해고 당했다.

북경의 한 일간지는 "장용벤 여인이 두번째 아기를 가진사실은 인민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쳐 수많은"과외아기"를 낳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세계최대의 인구를가진 중국은 아기는 1명씩만 두도록 출산을 제한시키고있다.

세계인구 105억 2110년 까지

(유엔본부)세계인구는2110년도에는 1백5억정도가 될 것이라고 13일 유엔의 보고서가 밝혔다.

유엔 인구활동 기금기구대표 라파엘·살라스씨는 2110년에는 세계인구의 60%가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80년도에 세계인구는 8천만명이나 늘었고, 81년부터 2100년까지는 매년 9천만명이 늘 것으로 이 보고서는 추산했다.

서울에 특사파견
헤이그 중공방문결과 설명

【워싱톤 연합통신-본지사특약】 알렉산더 헤이그 미국무장관의 북경방문 직후 헤이그와 중공지도자들간의 회담 결과를 한국정부에 전하기위해 특사가 22, 23일 양일간 서울을 방문하게 될것이라고 국무성 대변인이 10일 밝혔다.

동아시아 태평양문제담당 대변인 워런 매그너더씨는 헤이그 장관의 중공방문과 양국의 상호관심사에 관해 한국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비논 월터즈 특사가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터즈는 특히 남북한간의 관계와, 지난 1월12일 전두환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중공 지도자들의 반응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 피크닉
20일 라운트리공원

서울대학교 동창회(운영위원장 이창희)는 여름피크닉을 오는 20일(토)상오11시 라운트리(Rowntree)공원(핀치×이스링턴)에리아 1에서 갖는다.

캐나다주간 행사
하버·프론트에서

토론토·스타지가 주최하고 연방정부 복합문화성 장관이 사회를맡은 고유민속예술 소개의 밤이 30일(화)밤8시부터 2시간 동안 토론토남단 하버·프론트에서 열린다.

김용순 무용단은 이날부채춤, 북춤등을 공연한다.

온타리오주 각 지역에서 8개 민속그룹이 공연할 이 날행사는 26일(금)부터 7월1일까지 하버·프론트에서 계속되는 캐나다·위크(7월1일 캐나다·데이를 기념하는 주간)행사의 일환이다.

하버·프론트에서는 연일 밴드연주, 어린이음악회, 재즈, 골동품경매등 각종행사가 벌어진다.

서울시 8개 위성도시로

【서울 14일 연합통신 본지사특약】 서울 당국자는 8개의 부속 도시로 구성하는 "다핵도시"형태의 2천년 수도 매스터 플랜을 마무리 지었다고 11일 말했다.

서울시도 2천년까지 서울인구를 945만명이하로 유지시키며 주택수를 191만채로 증가, 현주택보유율 63%를 90%로 올릴 계획이라고 이 마스터 플랜에서 밝혔다.

또한 지하철 노선을 총 260km로 연장시켜, 주요교외 교통수단인 버스와 대체시키고 현재 방사망 거리구조를 바둑판형 구조로 변형시키기 위해 232km의 시내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생 52명 참가
모국학교서 언어등 배워

모국하계학교에 가는 캐나다 교포학생 52명이 김 [illegible] 인솔아래 한글학교장의 인솔로 22일 출발한다.

이들은 오는 22일부터 7 [illegible]까지 서울 삼청동소재 중앙교육연구원에서 합숙하면서 우리말과 문화, 역사등을 배우며 경주, 현충사, 민속촌등과 포함, 명승지들을 관광한다.

항공료는 각자부담이며 교육기간중 숙식비등은 한국정부가 부담한다. 14세~21세사이의 고교생들로 구성된 수강자들은 1인당 미화60달러의 수강료를 낸다.

여름학교에가는 학생들은 온타리오 24명, 브리티쉬·콜롬비아 15명, 퀘벡 7명, 알버타 6명이다.

이들은 오타와소재 한국대사관이 서류심사, 선정했다.

남지나해상 베트남 난민

(마닐라)미 해군전함은 14일 남지나해상에서 3척의 베트남 난민선을 발견, 굶주림과 탈수증상에 허덕이는 난민212명을 구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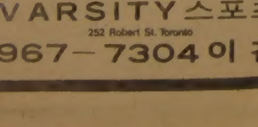
미군전함이 이들을 구조하기전 이미 19명의 난민이 숨졌다고 마닐라 북서쪽 80km지점의 수빅·베이 해군기지가 보고했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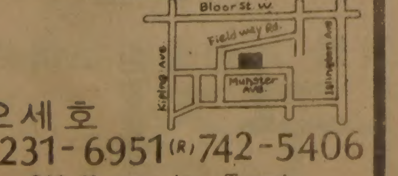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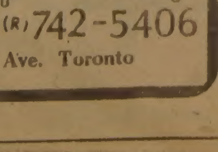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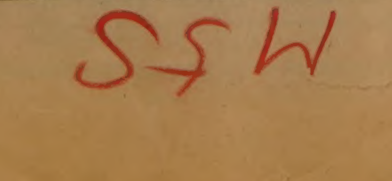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운동구점 개업
여름휴가 특별세일
①GOLF
●Slazenger Golf Shoes
Reg. $71(×) 세일가격 $49.00
●Hush Puppies Golf Shoes
세일가격 $36.98
②단체유니폼 마춤
각 동창회및 교회주문 환영
③각종 트로피및 감사패 주문
④ROLLER스케이트
사이즈 : 1 to 5 $39.00
Dominion Roller스케이트 $78.00


VARSITY스포츠점
252 Robert St. Toronto
967-7304 이 건 영

L&K AUTO BODY
완전바디와 완전정비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 처리
*완전 차체수리 *페인팅
*사고차량 토잉알선



오세호
(B)231-6951 (R)742-5406
346 Munster Ave. Toronto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 (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 (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유 지 원 전 병 호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5

해외이주권장 계획마련
유학생 군복무면제도

(서울16일 연합=본사특약) 한국정부는 8월부터시행되는 해외이주권장계획에 따라 지금까지의 해외이주및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획기적인 조치가 현 정부의 국가발전 촉진에 대한 의욕과 과거 수십년간 한국이 현저한 국력발전에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증가등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 당면한 경제적 기본여건으로 보아한국정부가 과거의 이민억제정책에서 인력수출 극대화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 이주권장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금지돼온 국장급이상의 공무원이나 연수 1천만원이상 자도 해외이주가 허가된다.

또한 군복무를 마치지않은 대학생의 해외유학금지등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얻었더라도 까다로운 국가검사 때문에 해외유학을가지 못하는 폐단도 크게 시정돼 선진국의 학문과 기술도입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 해외이주 권장계획은 또한 해외이주자의 정착지원금 지급도 규정하고 있다.

자녀교육 연속강좌
홍기형씨 초빙 한인교회서

토론토한인교회(목사 유재신)는 알버타대학에서교육학박사 과정을 밟고있는 홍기형씨를 강사로초빙, 특별교양강좌를 연다. 27일 28일 양일간 동교회에서열리는 이 강좌의 주제는「학부모, 교사를위한 자녀교육의 실제」.

27일(토)하오3시~4시30분은 각단체 실무교사를위한 강좌, 28일(일)하오2시30분~5시는 학부모를위한 강좌로 수강료는 무료이고 참가자는 필기도구 준비가 필요하다.

강좌내용은 다섯으로 크게 나뉘며 아래와 같다.

1·올바른 어린이 교육관—어떤 자녀를 바라는가?/학부모, 교사의 기본입장/이민자녀교육의 특수성

2·어린이의 발달과정—머리좋은 아이란?(지능발달)/성격발달은 어떻게이루어 지는가?/사회적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어린이 행동지도의 기본—행동수정의 기본/칭찬과 벌의 효과/문제아지도과정.

4·바람직한 학습지도 요령—학습과 동기유발/누가 학습부진아인가?/학습습관과 부모의 역할.

5·어린이 사례 지도(질문을 중심으로)—약속·형제싸움·용돈주기·밥을 안먹는아이·성교육·도벽·대소변 가리기·어린이옷 입히기·TV만보는 어린이지도법.

강사 홍기형씨(44)는 중앙대 사대교육과 졸업, 고려대학원 석사, 한국행동과학 연구소 부소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실장, 한국카운슬러협회 이사, 방송공사어린이프로그램평가자문책임자, 서울대·이대·중앙대강사역임.

홍씨는 저서로<지능은발달한다>, <나의 진로>등을 냈다.

◇스미스당수가 의회에서 퇴장 당하고 있다.

자유당의 스미스 당수 의회서 퇴장 당해

온타리오주 야당 당수인 자유당의 스튜어트·스미스의원은 11일 아스트라신탁 회사및 드모투자회사사건에 관련, 관계장관을「은폐장관」이라고 지탄하고 발언의 철회를 거부, 의회에서 퇴장 당했다.

스미스박사는 "보수당정부가 어떻게 르모회사스캔들을 은폐하는 가에관해여론을 집중 시키기 위해서 라면 의회에서 퇴장당한최초의 야당당수가 되어도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아스트라및 르모회사가 파산하자 3백여명 투자가들이 저금액을 몽땅 잃었다.

자유당은 이 사건에 정부의 실책을 조사하기위한 특별조사단 구성을 요구했으나 보수당은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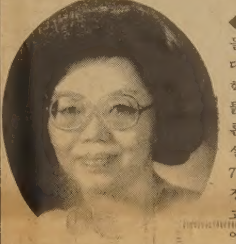
스미스당수는 고든·워커소비및 상업관계성 장관을 "벽창호 장관""은폐장관"이라고 호칭하고 이같은발언의 취소를 거부했다.

모국어교육 전국회의
연방정부가 처음주최

연방복합문화성이 주최하는 모국어 교육에 관한 전국회의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사스카툰의 사스카치완대학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의 주안건은 "80년대의 모국어 교육의 방향"이며, 참석자는 각급 정부및 기관, 각 에트닉 및 커뮤니티 단체의 대표들이다.

한인 모국어교육계 대표로는 유회자 씨알한국인학교교장이 참석했다.


◇유회자 박사

모국어교육에관한 회의는 연방정부가 복합문화정책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10주년 기념으로개최되는 것이다.

플레밍장관은"이번 회의에서 모국어교육 담당자들이 구체적 결론및 앞으로 보다나은 협력을 강구할전략을 세울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민동정

◆임철원(실험부회장)=아들 헨리(현식)군이 토론토대학 부속인 UT스쿨 입학시험에 13：1의 경쟁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다. 토론토대학이 시범학교로서 설립, 우수한 학생들을뽑아 7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과정을 6년만에 끝내도록 하고있는 UT스쿨에는 올해에도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지원했으나 합격권에들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8년이민온 임씨는 현재 여러개의 비지네스를 경영하고 있는 성공적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1남2녀중 헨리군이 장남. 헨리군은 평소에 책읽기를 즐겨, 때로 하루에 스무권씩, 일주일이면 백권을 돌파해낸다고 어머니 임여사가 전했다.

한글연극 공연
한인장로, 한국어학교

토론토한인장로교회 한국어학교는 6월말로 1주년을 맞는 기념행사로 7월 둘째주 종강발표회를 갖는다.

이에 대비, 김명세 교사가 마련한 한국어 연극각본 3개를 연습중이다.

이 학교에의 평균 출석아동은 55명이다.

헌법상에 명시키로 스위스 남여평등권

(베른)스위스는 지난주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남녀 평등권을 헌법상에 명시하기로 결의했다.

남녀평등권 명시안은 보수적인 지방에서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illegible]에서는 [illegible]의 지지를 얻었다.

남녀평등에 관한 헌법상 법규는 여성은 교육및 고용에있어 남성과 똑같은기회를 부여받고, 같은일에대한 동등한 대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illegible] 여성에 투표권을 주었었다.

社說

"창살 없는 감옥"
— 이민사회 노부모의 카타르시스

"어버이 살으실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 옛 시조에서도 깨우쳐 주었거니와 세상에 하늘 다음으로 고마운 존재는 부모가 아닐 수 없다.

낳아준 정, 길러준 정, 어엿한 사회인으로 교육·훈육시켜준 정이야 누군들 고마움을 모를까마는 세상에 그 어느 애정·우정보다 수십갑절 짙고 뜨거운 것은 부성애(父性愛)라 하였고, 그보다 더더욱 깊고 진한 것— 땅위의 최고보물은 모성애(母性愛)라 하면 아무도 이를 부인 못할 것이다.

한문풀이에서도 어버이 "친"(親)자는「부모가 나무 위에 서서 지켜본다」는 글자풀이로서, 어버이의마음눈은 한뉘 내리 잠시도 자식 위에서 떠나지 않고 지켜보면서 보호하고, 그 행운을 염원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애비 "부"(父)자는 자녀들 앞에 뻗치고 서서 온갖 악과 액(厄)을 막아주는 모형이고, 어미"모"(母)자는 울타리가 되어자녀들을 그 안에 감싸는 꼴을 이루어, 부와 모가 다 자녀의 수호신 구실을 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민가정에 있어노부모는 가치론 적으로 보아도 필요불가결의 거의절대적 존재로 꼽히고 있다. 가정의 기강을 바로잡고, 종적(縱的)질서를 세워, 선비의 나라 가정다운 미풍양속을 후대에 물려주는 점에서 노부모의 비중은 아주 큰 것이다.

또한 으레껏 부부 맞벌이가정이 교민사회의 실태임에 비추어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서 반가이 맞아주고, 따스히 보살펴주는 가정과 조부모 없는 가정의 차이는 어린이들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 유[illegible]의 격차가 [illegible] 전문가들이 증언해 주고 있다.

물론 조부모의 과보호·세심한 간섭 탓으로 손주들이 자치력이 없는 의존형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로 굳어버릴 우려도 없지않으나, 허구한 날 어른없는 낮동안의 허전한 빈집에서 잊혀진 잡초인양마구 자라는 위험성보다는조부모 계심이 훨씬 이로움이 많음은 모든이가 긍정하는 터이다.

어린 후손에게 오롯한민족얼과 뿌리를 바로 박아주고, 동양적 미풍양속을 깃들게 해주는 점에서도 노부모들은 든든한 방파제요, 등대구실도 해주고 있음을 젊은 부부들은 정당평가하고, 그에 맞갖은 대응(보답)에 게을리 말아야 할것이다.

이상의 이점 외에도 노부모의 어린이 보호(베이비시터) 역할 또한 무시 못할 비중 큰 것이다. 남에게 자녀를 맡기는 댓가가 안드니 돈 절약이라는 공리적 사고방식을 떠나서 친손주 돌보는 일이니 그분들은 보람을 느끼면서지극한 정성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함께 놀아주고 지성껏 가꾸어줄 것은 자명(自明)한 일이다.

남이야 돈벌이로 맡아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이라, 기계적으로 거둘고 놀려주며 시간만 보내면 그만인 것이다. 거기에는 혈육의 정도, 희생적 보호심도 극진한 정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자녀된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 각자가 남부럽잖은 개인, 어엿한 사회인으로 떳떳이 자리할 수 있음은 과연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생각의 칫수를 깊게 하여 곰곰히 성찰해볼 일이다.

저마다 개인으로서 그아무리 천재이고, 학자가 되고, 위인이 되고, 남이 우러르는 존재가 되었다 치더라도 그 시발점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역시 부모의 크신 뒷받침! 그 절대적 영향력의 결과임을 도리질할 강심장은 없을 것이다. 비록 피나는 자기노력의결과 대성(大成)했다 하더라도 오늘 자기가 있기까지의 원인(遠因)으로서의 자양분으로 어버이의 따스한 정, 정신적 배경, 음으로 양으로 이끌어주고 북돋아준 그 추진력에 힘입은 바 컸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눈을 이민현지로 돌려, 노부모 자신의 입장에 서 보면, 날에 날 이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다시피 하며, 벗하느니 철띠기 어린 것들과 생소한 TV정도일 뿐— 그 지루하고 갑갑한 기나긴 시간의 소비는 어찌 보면 막대한 희생의 연속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분들에게 기끔 바깥바람이라도 쏘이게 해드리고, 외식(外食)대접, 관광동행, 노인네끼리 만나 담소할 기회를 만들어 드려, 그동안 속으로 쌓인 울적함을 씻는 "카타르시스"의 계기를 마련함이 자녀된 응당한 의무요, 후회없는 효도의 일환인가 한다. 적어도 매주말 한번 정도는…. 노부모가 산대야 앞으로몇십년을 자녀와 함께 사시겠는가?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라"는 옛 시조의 뜻이 새삼 크게 떠오르는 요즈음이다.

물론 노년회, 한인회, 동우회, 각교회, YMCA 등이 경로행사를 해마다 해오고 있으니 교민들은 그런 행사를 적극 뒤밀어야 하겠고, 한편 가정에서도 동심으로 돌아가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고 서러워하기일쑤인 노심(老心)을 지성다해 어루만져 드려, 흐뭇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럴 제면 정녕 "창살없는 감옥"격인 가정이 에덴의 나무그늘로 화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⑫

팔리·모왓 원작, 현재훈 옮김

그것은 약 20피트길이의 썰매였는데 9마리의 큰 개들이 끌고와서 썰매는 오히려 작게보였으며, 가까이 올때까지 나는 꼼짝도 안하고 앉아서 지켜보았다.

그중의 큰 두마리의개는 쌓아올린 사슴털을 받히는 몇개의 빗장을 걸고있었고 털위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행렬은 녹기시작한 지면과 질펀한 해안선을 피하여강가의 가장자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 똑바로 마주보였기 때문에 개들몰고오는 사람이 에스키모가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었고 썰매는 방향을 틀면서 오두막집 마당에서 멈추었다.

일년내내 낯선사람 이라고는 전혀 보지못하는 이 격리되어 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의심스럽기 짝이없었 으므로 나는 내가숨어있는곳에 그냥 남아있었다. 힘없이 시간만 보면서 그 사람이 썰매에서 내려와 우뚝서서 오두막집 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것을 보고만 있었다. 그의 도착이 나에게충격을 주었지만 나는얼마나 그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가! 자기집에 와보니 누군가 살고있음을 발견했을때 그에게도 충격은 말할수없는 것이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는 꼼짝도않고 한참동안 서 있더니 썰매에있는 총집에서 총을꺼내 들었다. 총을손에든채 도끼가 세워져있는곳으로 가서 도끼를 집어들어 마치 하늘에서떨어진 신비한 물건인것처럼 들여다 보았다.

후에 그는 자기집에낯선 방문객이 살고있음을 확인했을때 그의마음속에 일어나는 혼란을 걷잡을수 없었노라고 말했다. 보다시피 외부세계에서는 신비스럽게 생각되어 아무도 찾아오지않는 땅에서 그는일생을 살아 왔었다. 그는혹시나하고 개 발자욱을찾아 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나. 거울철에 인디 리버에 찾아올수 있는방법은 썰매를타고 오는것 이외는 그가전혀 생각할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바위로된 산속에서 살고 있는인간이아닌 짐승들 말고는 이땅에 낯선사람 이라고는 전혀없다.

그는 한손에 총을들고공포에 질린듯이 문을열고안으로 들어갔다.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나의 물건들과 이상한 물품들은 그를 완전히 당황 시키고 말았다. 그는 집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때나는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썰매 가까이로 접근하자 개들이 먼저보고 발작적으로 요란스럽게 짖어대자그 사람은 팔에 총을 비껴들고 문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그의얼굴은 표정이없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긴장되고 무난한 첫 대면 이었다. 그의 이름은 프란쯔였고 오래동안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듯이인간들 사이에서 생기는 두꺼운 벽을그냥 지니고 있었다.

프란쯔같은 사람들은 보통 낯설은 사람한테느끼는 분노를 그렇게 나타낼수도 있다. 또 다른이유로는 혼자사는 사람들은 자기종족을 무서워 하는데 원시시대에는 낯선 사람이 적으로 둔갑할수 있다는 잠재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했다. 나는 내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이 오두막 집까지 왜 왔는가를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말이잘 되어나오질 않았다.

프란쯔는 꼼짝도 안했지만 내가 비행기로 도착했다는것을 알고 곧 안심하는 눈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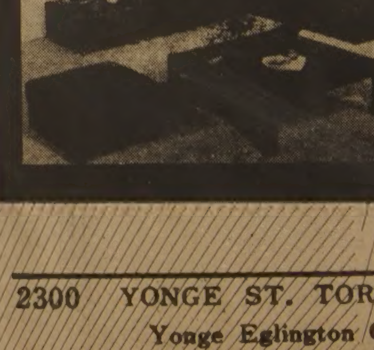
III. 침입자

내가 설명을 하고나서도 그는 말한마디 없이 5분간은 꼼짝도 안하고 나를 쏘아보았다. 그동안 나는 그를 자세히 관찰 할 수 있었다. 덥수룩한 그의 외모는 나이에 비해 늙게 보였지만 아직도 그는 젊은 사람이었다. 나긋나긋하게 가늘고 사납게 보이면서도 그렇게 큰 체구는 아니었다. 그는 백인의 옷과 에스키모의 가죽옷을 섞은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도시에서 어린아이들이 쓰고다니는 것처럼 헝겊으로 만든 비행사가 쓰는 헬멧을 쓰고 있었다. 헬멧은 앞으로 기울려써서 얼굴의 반을 가리웠다. 까만 눈동자가 그림자 속에 묻혀 있고 아시아 사람의 배경인 인디안의 얼굴에 눈에 확 띄는 틀림없는 독일인 코가 그 밑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가 눈도 깜박이지 않고 나를 관찰하는 동안 나는 곧 안정을 찾고 용기를 되찾았다. 북극 사람들에 관하여는 들던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접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비틀 거리며 넘어지는 시늉을 했다.

그의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걷히면서 약간 미소를 짓더니 오두막 집속으로 들어가며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다. 나는 독한 술한잔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나의 짐꾸러미에서 술병을 뽑아 들었다.

한국일보
533—2363

ecosys
생활가구·생활예술
MODERN FURNITURE
멋과 품위를 자랑하는 가구점
○최고의 품질 ○섬세한디자인 ○저렴한가격
특별세일
가축제품공장과 쇼룸을 구비하여
특별대매출을 단행합니다.


생활의 풍요와 안락한 가정을창조하는
현대인의 가구점
2300 YONGE ST. TORONTO
Yonge Eglington Centre
486—0397 김만구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살기좋은都市 慶州 金泉 東草順

서울大 楊秉彝교수 37개都市「환경실태」조사

교통·犯罪·住居수준등 35개지표 분석

조건나쁜都市 昌原·城南順

69년부터 10년간 變化적은都市 木浦·釜山·淸州

전강성	쾌적성	안전성	住居性
① 淸州 ② 群山 ③ 馬山	① 金泉 ② 濟州 ③ 東草	① 東草 ② 慶州 ③ 三千浦	① 濟州 ② 光州 ③ 大邱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는 慶州 金泉 東草이다. 반대로 가장 살기나쁜 도시는 昌原 城南 水原 安養 富川 龜尾등 대부분 신흥공업도시이다. 60년대이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단면을 보여주는 이같은 사실은 서울大 楊秉彝교수가 우리나라 37개도시의 안전성 전강성 능률성 쾌적성과 도시수준환경, 커뮤니티수준환경, 주거수준환경을 중심으로 조사한 「환경지표를 활용한 도시환경실태분석」에서 밝혀진 것이다. 대부분 인구 10만~15만명 규모의 도시가 「살기좋은 도시」순위의 상위랭킹을 차지했으나 같은 규모의 도시라도 신흥공업도시는 바닥에 처져있는 것이 특색이다.

(中略), 주택보급률, 스포츠시설률, 문화시설보급률, 오픈스페이스율과 인구1만명당 소방차및 소방원, 대중교통수단의 지표를 이용·분석했다.

金泉다음은 忠武 淸州 慶州가 우수했고 가장불량한곳은 공업도시 昌原이었다. 水原 龜尾 富川도 최하위 그룹이었다.

인구1만명당파출소, 의사, 약국, 양로원, 고아원, 우체국, 시장면적과 학급당 학생수 (初)어린이놀이터보급률, 공원율의 지표로본 커뮤니티수준환경은 慶州가 가장 우수한 도시였고 原州 서울 議政府 群山도 최상위그룹이었다. 가장 처진 도시는 濟州였고 신흥도시인 蔚山 昌原 安養이 최하그룹으로 어깨를 나란히했다.

주거수준환경은 濟州가 가장 (이하 생략)

楊교수의 조사분석에 의하면 도시의 안전성은 東草가 가장 높았다. 교통사고율, 인구1만명당 소방차및 소방원 수, 범죄발생률, 풍수피해인원, 인구1만명당 파출소수의 지표를 이용해 분석한안전성은 중소도시인 慶州 三千浦 裡里등이 東草를 뒤따랐다. 안전성이 가장 낮은 도시는 水原 昌原 安養 議政府 大田등이었다.

도시의 전강성은 상·하수도보급률, 수질오염도, 塵芥수거율, 대기오염도, 수세식변소보급률, 불량주택률, 1일평균급수량과 인구1만명당 의사·약로원·고아원수의 지표를 통해 살폈는데 淸州 群山 馬山 木浦 原州 裡里 議政府가 최우수그룹이었다.

최하위그룹은 龜尾 昌原 城南등 신흥공업도시와 三千浦 東草였다.

도시의 능률성면에서는 서울이 1위였다. 그다음은 慶州 鎭海 春川 金泉의 순이었다. 이 능률성은 도로율, 포장률, 학급당학생수(초·중·고), 자동차및 전화보급률과 인구1만명당 대중교통수단, 시장면적, 우체국의 지표를 이용해 분석한 것이다. 능률이 가장 낮은 도시는 安養이고 慶水 城南 富川 三千浦가 뒤따랐다.

주택보급률, 스포츠시설률, 문화시설보급률, 오픈스페이스율, 어린이놀이터보급률, 공원률, 방(房)당 주거인수, 가구당대지면적등의 지표를 통해 분석한 쾌적성이 가장 높은 도시는 金泉으로 밝혀졌고, 淸州 東草 忠武 鎭海 慶州가 뒤를 이었다.

도시의 환경수준분석에 이용된 35개지표를 전부종합한 지수를 통해 보면 종합순위 1위는 慶州였다. 그만큼 살기좋은 곳이다. 2위가 金泉이고 3위가 東草다.

이 종합순위는 안전성 능률성 쾌적성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각도시의 등급은 최우수도시가 慶州 金泉 東草 清州 晋州 群山 裡里 原州 議政府 鎭海 江陵 忠武, 양호급도시가 大邱 馬山 全州 木浦 浦項 順天 忠州 安東 보통급 도시는 釜山 水原 安養 富川 仁川 大田 蔚山 慶水 天安 三千浦, 불량급 도시는 城南 昌原 龜尾였다.

우리나라 도시는 69년도를 0으로 할때 78년까지 10년동안 평균 81.22%의 변화율을 보였다. 이것은 교통사고율, 소방차1대당 인구, 의사1인당 인구, 상·하수도보급률, 1인당 평균급수량, 塵芥수거율, 도로율, 포장률, 자동차보급률, 전화보급률, 주택보급률등 13개 지표를 이용분석한 것으로 가장 많이 변한 도시는 변화율 148.4%의 原州였다. 그 뒤는 화약열차폭발사고로 면모를 일신한 裡里(145.2%), 晋州(131.8%), 三千浦(119.2%), 慶州(11.6%)가 이었다.

가장 변화하지 않은 도시는 木浦로 변화율은 겨우 9.7%였다. 전국도시 평균변화율의 8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다음은 항구도시 釜山(49.3%) 清州(39.3%) 浦項(50.9%) 仁川(40.5%) 麗水(51.4%) 蔚山(49.9%) 天安(52.5%)순이었다.

◇都市別환경종합지수분석순위

도시명	안전성	전강성	능률성	쾌적성	도시환경수준	커뮤니티수준환경	주거환경수준	종합지수분석
서울	29	30	1	14	25	3	6	12
釜山	32	27	19	13	32	12	16	28
大邱	30	8	6	33	26	14	3	24
仁川	24	10	28	37	21	25	32	29
光州	22	9	12	7	19	10	2	9
大田	33	12	18	30	24	27	10	27
馬山	27	3	7	35	17	20	7	17
蔚山	25	31	17	31	29	36	9	31
全州	18	15	20	18	20	15	14	18
城南	26	34	35	32	31	32	36	36
水原	37	25	8	23	36	22	8	35
淸州	20	1	21	10	9	13	5	11
木浦	21	4	31	29	28	11	11	23
安養	35	28	37	16	33	33	26	34
浦項	16	22	15	19	11	29	17	20
晋州	14	13	10	15	8	16	18	10
群山	11	2	25	20	14	5	29	8
富川	31	29	34	36	34	21	28	33
春川	28	11	4	9	18	7	24	13
濟州	23	18	30	2	3	37	1	14
麗水	17	23	36	26	27	28	30	30
裡里	4	6	16	28	12	9	25	5
原州	15	5	14	12	23	2	12	4
議政府	34	7	11	8	22	4	19	16
順天	8	20	27	22	13	18	33	19
慶州	2	17	2	6	4	1	23	1
忠州	12	32	9	25	7	31	35	22
天安	19	26	26	21	30	17	21	26
鎭海	6	16	3	5	5	8	15	15
江陵	5	19	13	11	10	23	4	6
安東	13	24	22	17	16	30	20	21
龜尾	9	37	23	27	35	19	37	32
東草	1	33	32	3	6	24	27	3
忠武	7	21	29	4	2	26	31	7
昌原	36	35	24	34	37	34	22	37
金泉	10	14	5	1	1	6	13	2
三千浦	3	36	33	24	15	35	34	25

油價15%내 引上땐 交通料동결

國會經科委 질의·답변

"올物價 20~25%線 억제하겠다"

국회는 13일 經科委를 열고 申秉鉉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物價동향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보고를 들은뒤 정부의 物價대책을 추궁했다. ★질문·답변内容4면

이날회의에서 民正黨의 申相式 高貴男 洪性佑 李孝益 崔相榮, 民韓黨의 李炳培 洪思德 李興秀, 국민당의 金鍾河의원과 무소속의 趙舜衡의원등은 정책질의를 통해 ▲공공요금인상이 物價인상을 先導한다고 국민들이 不安을 느끼고 있는데 공공요금을 1년에 한번씩 한꺼번에 발표할 용의는 없는가 ▲금년도 물가상승률을 20~25%선으로 억제할수 있는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生必品가격을 凍結시키거나 정부가 직접 生必品을 공급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申부총리는 『農水産物가는 기본적으로 작년 수준보다 올리기 힘들다』고 밝히고 『금년 물가 인상률은 20~25%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없으며 자신도 있다』고 말했다.

申부총리는 『석유값은 原油값이 인하되어도 換率을 생각하면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고 引下說을 부인하고 『公共요금은 인상요인이 생길때만 적정선으로 올리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철도청과 체신청의 公社化는 언제가는 해야겠지만 그시기는 알수없다』고 말하고 『서민들에대한 재정지원이나 生必品의 배급제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申부총리는 『철도요금을 포함한 교통요금은 앞으로 15%이상의 에너지값인상이 없는한 금년에는 인상을 凍結할것』이라고 밝히고 『전화요금이 인상되지않아 금년에 계획했던 83만회선증설은 실현할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申부총리는 의원들의 경기부양책에관한 질의에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꾸준한 경기회복으로 당초 5~6%로 예측했으나 6%를 초과할전망』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경기상승추세에서 더 이상의 경기부양책은 잘못하면 경기과열현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해 정부가 금년중에 더이상의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을것임을 밝혔다.

그는 또 『교육세를 어떤형태로든 신설치않고는 현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교육세는 국민의 稅부담이 있는만큼 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견해를 충분히 종합하겠다』고 밝혔다.

全대통령, 國際蹴球대회始蹴

全斗煥 대통령은 13일 오후 영부인 李順子여사, 영식 在國군과 함께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된 제11회 대통령배쟁탈 국제축구대회를 참관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오후 丁來赫국회의장, 南悳祐국무총리, 曺相鎬대한체육회장의 안내로 대회장에 도착, 개회식이 끝난후 운동장에 내려가 각국 선수단대표들과 악수를 나눈뒤 센터·서클에서 始蹴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벌어진 한국과 프랑스팀의 전반45분 경기를 관람했다.〈사진〉

全대통령 關稅廳소관 業務등 報告받아

全斗煥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金瑆鎭 관세청장으로부터 소관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란 地震위로電文

全斗煥 대통령은 13일 이란의 국가지도자 호메이니옹과 바니사드르 대통령에게 각각 電文을 보내 최근 이란의 케르만省에서 발생한 지진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과 함께 희생자들의 신속한 구조와 피해지역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기원했다.

이란機, 쿠웨이트 爆擊

3臺기습 首都북쪽 80km 불길 솟아

【쿠웨이트13日AP合同】이란전투기 3대가 쿠웨이트영공을 침범했으며 이 비행기들이 쿠웨이트수도 쿠웨이트북쪽 80㎞지점에 위치한 쿠웨이트-이라크 국경지대의 압달리지역 상공을 지날때 지상에서 불길이 솟았다고 쿠웨이트국방성이 13일 발표했다. 대공포화를 받은 이 비행기들의 공격을 받은 지역에서 사상자는 없다고 국방성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이 3번째 侵犯

이날있은 이란전투기의 쿠웨이트 영공침범은 이란-이라크전 발발이래 3번째이다.

사드르 이란大統領 某處은신

銃聲속 兩派 流血충돌

축출對抗 궐기呼訴 사드르

테헤란上空 軍헬機

【테헤란13日 路透=聯合】혁명 방위군은 바니 사드르대통령지지자들과 회교근본주의자들간의 새로운싸움이 테헤란중심부에서 발생하자 제지를위해 공포를 발사하였다. 혁명방위군은 이날 양파의 난투극을 진압하면서 수십발의 총을 쏘고 최루탄을 터뜨렸다.

회교과격파들이 검은 옷을입은 약2백명의 바니사드르 지지파 여성들의 무서데모에 맞서 공격을 한직후 구급차가 동원됐다. 이 난투극에서 최소한 5명이 머리에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것이 목격되었다.

대통령지지파와 회교극단주의자들간의 이날싸움은 12일밤 독재에의 항거를 호소한 바니사드르대통령의 성명이 발표된 직후에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유혈충돌이다.

【베이루트13日AP=聯合】이란대통령특별경호대는 군통수권 박탈에이어 사임압력을 받고있는 아볼·하산·바니사드르 대통령이 회교강경파들에 의해 축출당할 위협에 직면하고있는 가운데 13일 테헤란의 대통령 집무실및 자택주변에 포진, 전투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만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AP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3천6백만 이란국민에게 자기를 실각시키려는 기도에 대항 『총궐기』할것을 호소한데 이어 이날새벽부터 이같이 전투태세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illegible]

바니사드르 대통령은 이날 메이니옹에의해 군통수권을 박탈당한후 12일밤 긴급성명을 발표, 회교세력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있다고 지적하고 이란국민들이 이란의 민주화 지속을위해 회교세력에 대항, 총궐기할것을 촉구한바 있다.

【테헤란13日 路透=聯合】군통수권박탈과 함께 사임압력을 받고있는 아볼·하산·바니사드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음모가 진행되고있다고 비난한후 13일 현재 그의지지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비밀장소에 은신해있다고 대통령의 한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社會漫評 新安앞바다

地平線

예전 중국에 五刑이란 것이 있었다. 이마나 팔뚝치에 먹물로 글자를 새기는 묵형(墨刑), 코를 베는 의형(劓刑), 발뒤꿈치 힘줄을 끊던 월형(刖刑), 생식능력을 없애 버리던 궁형(宮刑), 목숨을 빼던 대벽(大辟)…

[illegible]

美, 駐中共大使에 아더·허멜氏임명

【워싱턴13日UPI=聯合】레이건 미대통령은 13일 아더·허멜(61) 파키스탄주재미대사를 중공주재대사에 임명했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64
은 : 온스당 US 10.2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교포 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BRITANNICA
NOW 30 VOLUMES!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용특배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문의처 : 536-9082(B). 245-7522(R)

특별할인은 6월20일 까지입니다
SUN... ...SUN...ROOFS!
MOON'S LETS THE SUN SHINE IN!...
WINDSHIELDS
INSTALLED • ALL MAKES
INSURANCE CLAIMS
SUN ROOFS
FROM ONLY $140.00 INSTALLED
GRAND OPENING SPECIALS
VINYL ROOFS ONLY $100.00
Car Upholstery and Steam Cleaning Available.
MOON'S AUTO TRIM & GLASS LTD.
638-0656
12 LE PAGE CRT. UNIT 4 DOWNSVIEW
정해문
Finch & Keele

각종 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R.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FURS
Paul Magder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영업시간
: MON. TUES. WED. SAT. 9:30-6:00
THURS. FRI. 9:30-9:00
●신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MRS. PARK
202 SPADINA AVE. ☎ : 363-6077

한국産業의 뿌리

— 제2의 經濟도약…重化學工業에 달렸다

◇國際競爭力現況 80年末現在

部門	競爭力確保品目	競爭可能品目 80年代前半	競爭可能品目 80年代後半
鐵鋼·金屬	中厚板(59%) 鋼管(66%) 冷延鋼板(51%) 線材(86%)	아연도鋼板 스테인리스鋼板 鑄鐵 鍛鋼	電氣鋼板 特殊高合金鋼材
一般機械	汎用工作機械(27%) 時計(50%) 光學機器(70%)	家電機器 纖維機械 農機械 各種機械部品	精密機械 産業機械 엔진 油壓機器 計測機器
電子	카세트테이프(88%) 흑백TV(84%) 녹음기(93%) 트랜지스터(96%) 전자시계(80%)	칼라TV 전자계산기 전화기 브라운관	VTR 반도체 전자교환기
輸送機器	船舶(油槽船·벌크船)(81%) 鐵道車輛(17%) 自轉車(39%) 自動車部品一部(11%)	船舶(試錐船) 船舶機資材 鐵道車輛 二輪車 自動車部品	航空·宇宙 特殊車輛 各種엔진 主要機能部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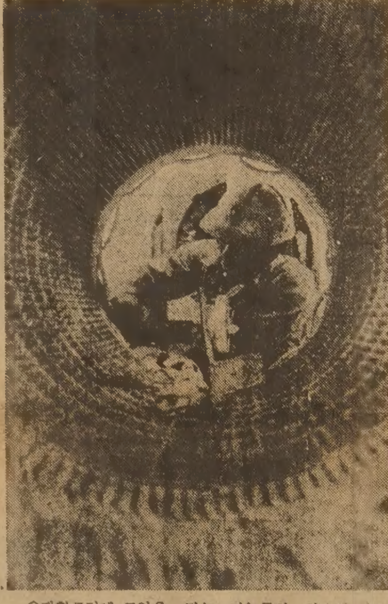
註:( )안은 生産額中 輸出額 比率 資料·商工部

重化學工業은 경제개발과 더불어 국민의 성원속에서 자라온 피땀어린 산업이다.

資金難

百90업체 借入金은 內資 2조5천억·外資 34억弗

一貫性있는 選別育成바람직



◇대형모터에 코일을 감는 기능공의 일손이 바쁘다. 【曉星重工業에서 金廣泰기자찍음】

教育長·奬學官등 전문직

2년이상 教育經歷 있어야

文公委小委수정법안 任用요건 대폭强化

日·北傀 무역대표부 설치發言

政府서 銳意주시

平統諮問회의 運營위원임명

49명

社說

여름을 사는 知慧

—心身의 싱그러움을 함께다지자

오랜가뭄 끝에내린 단비로 녹음은 한결싱싱하고 짙푸르다. 夏至에는 아직 이르지못한 절기인데도 날씨는 한여름이 단숨에 달려온 느낌이다.

가뭄이가시고 비가내린들판에는 모내기로 일손들이 바쁘다.

「6·5」拒否와 漁船납북

—그挑發性버리고 對話場에나오라

"농민은 계속 피해만 입으란 말이냐"

" 토론토한인 테니스 클럽 회원모집"

테니스를 좋아하거나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 친목과 연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장 소 : 더프린 Mall건너편 공원속 (더프린×블루어)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전11시
시 작 : 6월20일(토)부터

※김가별, 이전영 선생의 쥬니어및 성인남녀 무료 렛슨

연락처 : 바시티 운동구점 967-7304
장북성 964-2990,
김일현 881-9232

토론토 한인 테니스 클럽

천우여행사

◎ CP 항공 (뱅쿠버 경유)
◎ 대한항공 매일
◎ 뉴욕경유(귀로에는 L.A. 경유할 수 있음)
◎ JAL 주 3 회

대표 김현두

Ⓑ928-3335
Ⓡ651-8081
720 Spadina Ave. Suite 104
HERALD TRAVEL SERVICE LTD.

怪青年、엘英女王에 空砲 6발

생일祝賀 시가행진 行事참석도중

수천群衆 비명…수라장

犯人 17歲失職者 현장서 체포 모의권총 判明

최고7年刑

◇엘리자베드여왕

【런던13日외신=聯合】엘리자베드 영국 여왕이 부군필립공 및 찰즈 황태자와 함께 13일 자신의 탄신축하행사로 벌어진 시가행진에 참석하던중 한 괴청년이 공포를 발사하는바람에 잠시 곤욕을 치렀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소지한 권총은 모의권총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한청년이 군중틈에서 뛰쳐나와 진짜권총과 비슷한 모의권총으로 공포를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한경찰관이 즉각 이청년을 체포、 권총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 사건은 여왕이 필립공 및 찰즈 황태자와함께 버킹검궁을 나와 자신의 근위기병들이 벌인 시가행진을 참관하러 가던중 발생했으며 여왕은 잠시총성에 놀라허둥거리는 자신이 타고있던말을조종하느라 애를먹기도했다。

엘리자베드여왕은 사건발생 몇분이 지난후 다시 미소를 지으면서 근위기병들의기마행진을 사열했다。

6발의 총성을 목격한 한 여인은 『여왕은 총성이 들렸다고 말하고 『여왕은 총성이 들릴당시 매우 당황한 표정이었으나 일행중 몇몇 호위병이 뛰어들어 호위하자 평온을 되찾고 기마행진의 사열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목격자는 총성이여왕의 10피트이내에서 들렸다면서 한동안수천명의 군중이 비명과 고함을 지르는 수라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포된 괴한은 켄트주 폴크스톤출신의 마커스·사이먼·사전트로 올해나이 17세의 실직자라고 영국경찰이 밝혔다。

사전트는 『여왕전하를 놀라게할 의도로 실탄없는 총을 발사했다』고 말했으며 런던경시청고관은 『그는 7년징역형을 받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사전트는 15일 아침법정에출두할예정이다。

◇이란 地震現場 이란 케르만지역의 지진현장에서 구조대들이 수북이쌓인 돌조각들을 치우고있다。 5천명 이상의목숨을 앗아간 이지진 피해는 아직정확히집계되고 있지않다。 【케르만13日UPI電送=聯合】

佛 오늘議會總選

【파리13日AFP=聯合】미테랑社會黨首가 대통령으로 선출된지 1개월남짓되는 14일 프랑스는 미테랑 대통령이 사회주의자로서의 그의 제반계획을 실현하기위해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할수있을것이냐를 판가름할 총선에 들어간다。 이제까지의 선거유세는 유권자들로부터 별 흥미를 끌지못했지만 이번 주말이 총선의 중요고비가 될것같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모든 선거구의 당선자를 최종결정하는 21일의 제2차결선투표에 의해 판가름나게될 것이다。

애그뉴 獄中當選 에이레共總選

【더블린(에이레)13日AP=聯合】북아일랜드의 메이즈교도소에 수감중인 에이레공화군(IRA) 게릴라 패디·애그뉴는 12일밤 정치범대우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중인 IRA죄수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힘입어 에이레공화국국회의원으로당선됐다。

헤이그 美國務 오늘 中共방문

【워싱턴13日=曺淳煥특파원】아시아 太平洋순방길에 나선 헤이그美국무장관은14일 3일간예정으로중공을방문한다。

헤이그 국무장관은 12일홍콩에도착、 머리·매클리호스 홍콩총독을 예방、 환담한뒤 휴식을 취했다。

헤이그국무장관은北京에머물면서 중공지도층과만나 미국의 臺灣무기판매에따른 중공측의 불안을 무마하고 중공에 최신무기 판매를 제의할것으로 보인다。

中共 全人代常委長 彭眞으로 교체할듯

【홍콩13日=聯合】중공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부위원장彭眞이 금년내에 개최될것으로 예상되고있는「제5기 전국인민대회」(第五期全人代) 또는 제6기 전인대에서 葉劍英을교체하여 전인대상무위원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많다고 13일 香港時報가 내다봤다。

香港時報는 彭眞이 최근전인대법제위원회주임직을 사퇴한것은 상무위원장으로승진하기위한 예비조치라고풀이하고 彭眞은 지난6개월간 이상이나 葉劍英을 대신하여 상무위원회를 주재하고 葉劍英의 이름으로 외빈들을 접견해왔다고 지적했다。

美、거부권행사할듯

安保理 對이強力制裁고려

【유엔본부13日AP=聯合】유엔안보리는 최근 이스라엘의 이라크 원자로 폭격사건과 관련、 이스라엘에대한 광범위한 제재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채택을 고려중에 있다고 안보리 소식통들이 13일 밝혔다。

안보리는 이날 이스라엘이 불참한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라크원자로폭격사건에 대한 토론을 재개했는데 이라크의 사둔·하마디외상은 안보리가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일체의 무기거래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줄것을 촉구했었다。

안보리 소식통들은 이번안보리의 對이스라엘 결의안에는 이스라엘규탄과함께 특히 이스라엘에대한 전면 혹은부분적인 경제관계및 모든교통통신수단의 왕래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등 안보리가 취할수있는 비군사적인 제재책이 포함되어 있다고밝혔다。

80m 우물에 추락한 6세少年끝내숨져

【프라스카티(伊)12日AP=聯合】지난10일 프라스카티에 있는 직경30㎝、 깊이80m 우물에 추락、60여시간 동안 생사의 투쟁을 벌이던 6세 소년 알프레도·람피군이 끝내 숨진것으로 보인다。

우물에서 3m떨어진 지점에서 새로운 救命道를 굴착하면서 구조작업을 벌여왔던 특별구조반은 13일 동굴탐사가까지 동원、 최종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람피군은 우물 60m 지점에 갇힌이래 플래스틱파이프로 전달되는 유동식을통해 연명해왔다。

람피군의 구조작업은 이탈리아 국영TV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었으며 산드로·파르티니 대통령도 현장에와 소나와구조작업을 격려하기도 했다。

◇애타는 母情 지난 10일이래 地下61m의 우물에 갇혀있는금년6세의 소년인 람피군의 어머니가 화성기를통고 아들과 통화하고있다。【로마13日AP電送=聯合】

메아리

寶物船의 수난

新安앞바다에서 해저유물선이 발견된것은 「우연」이었다。 저인망어선으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의 그물엔 뜻밖에도 고기가 아닌 꽃병이 담겨 올라왔다。 宋·元代의 명품 도자기였다。

이를 빼면 갯벌이 온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물살이 센 바다에 먼저 뛰어든 것은 일확천금을 노린 도굴범들이었다。 76년1월 매장문화재 발견신고가 있은뒤 8개월쯤 지나 첫번째로 도굴범이 잡혔다。 4백여점의 보물과 함께—。 이때부터 바다밑에서 6백년을 고이 지낸 보물선은 수난을 겪어야 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도굴사건은 10여건、 관련자도 60여명이 넘는다。 막연한 추정이지만 도굴당한 유물이 수천점이 될것이라고 한다。

이 유물 가운데 자칫했으면 일본으로 팔려갔을뻔 했던 세계최고의 걸작 도자기가 있다。 元代초기에 만들어진 모란꽃무늬꽃병 (靑磁陽刻牡丹紋大花甁)。

검찰은 지난 봄 1백여일의 수사끝에 이 보물단지를 숨겨둔 집을 급습했다。 허름한 종이상자에 든 꽃병 하나가 모두였다。 수사관들은 실망했다。 그러나 감정을 하면 문화재전문가는 깜짝 놀랐다。 높이 52㎝가량인 이 꽃병엔 중국도예의 명산지인 龍泉窯의 독이한 秘色이 감돌았다。

이 보물이 수사의 손길을 벗어났다면 지금쯤 일본에 건너가 골동 숨어 버렸을지 모른다。 그 값어치는 돈으로 환산하면 1천억원이나 될것이라 한다。 골동가에서 근거없이 떠도는 이야기로 신안해저유물은 모두 1조원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이 보물을 두고 도굴범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문화재관리국 해저유물발굴조사단은 오는16일부터 선체인양작업에 들어갈계획이다。 「해저의신비」가 두달 지나면 우리 눈앞에 떠오를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인 인양작업을 앞두고 한때 잠잠하던 도굴범이 또 나왔다。 한국일보가 어제아침특종보도한 도굴기사를 읽으면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도둑을 막아 달라고 세워둔 감시원조차 도굴품을 뇌물로 받고 감시의 눈을 감아버렸다。 도둑에게 열쇠를 맡아 달라고 부탁한 격이 되었다。

하루 빨리 선체가 인양되어 이 귀중한 보물선이 더 수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

中共、美옆구리찔러 協商에 機先

헤이그 北京방문…兩國의 속셈

對蘇 견제戰略엔 意見일치

北京、武器·經援얻으려腐心

國際焦點

【워싱턴13日=曺淳煥특파원】헤이그 美국무장관은 14일 北京에 도착한다。 이번 헤이그의訪中은71년 키신저의 北京여행이래 가장중요한 방문이 될것이라고 홀브루크 국무성 東아시아및 태평양담당차관보가 10일 의회에서 증언했다。 臺灣문제로인한 美·中간의 불신을 씻고 공동이해 관계를 갖는 對蘇견제전략관계를 군사협력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헤이그가 17일까지의 北京방문에서 안고 있다고 홀브루크는 강조했다。

72년 닉슨이 처음미국대통령으로 중국땅을 밟았을때 毛澤東은『臺灣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국제정세가 중요한 문제다。 臺灣문제는 세계다』라고 말했다고 키신저는 회고록에서 밝혔다。 毛澤東이『臺灣문제는 세계다』라고 한것은 미국과 중공이 손을 잡아 소련의 세계패권을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을 것이다。

78년 美·中이 국교정상화에 합의 했을때 鄧小平등 중공지도자들은 미국이 臺灣과 공식외교관계는 끊지만 무기는 계속판매할것이라는 공표되지않은 의도를 이미 시인했던 것이다。

臺灣보다 세계를 더중시하는 北京의 전략에는 오늘에도 변함이 없다。

중공당 정치국은 지난5월 상순께 4일간의 중대회의를 열어 對美、對西方、對蘇정책에 관해 토의하고 對蘇견제、對美제휴정책을 추진해가는 정책방향을 재확인한것으로 알려졌다。

新華社통신을 비롯한 중공신문들은 헤이그訪中을 맞아 미국이 중공과 臺灣에 함께 무기를 팔생각이라면 중공은 미국무기를 사지않을것이며 臺灣에대한 무기공급은 미·중관계에 파국을 초래할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헤이그와의 중대한 담판을 앞두고 중공이 옆구리를 찌르는 협상전략을 편것이다。

중공이 臺灣을 무력으로통합하려는 현실적위협이 없는터에 臺灣이 전투기를 사들인다는것은 臺灣해협에 긴장만 조성하는것이라고 중공은 주장한다。

미국방성도 臺灣에대한 중공의 무력적위협이 없다는것에 비중을 두고 FX전투기의 臺灣판매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있다。

중공사람들이나 미국사람들이 다 실리타산에 밝고 국제정세의 적응이 빨라 臺灣문제로 그들의 세계전략에 흠을 가져오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않을 것이다。

중공은 미국이 FX전투기나 고도의 군사정밀기술을 臺灣에 제공하는것은 반대할것이나 지금까지 미국이 연8억달러정도를 臺灣에 판매해 온 무기공급에는 반대하지않을것으로 보인다。

중공은 臺灣문제를 그정도의 선에서 미국과 타협하고 이집트나 유고슬라비아처럼 미국으로부터 경제차관도 얻고 무기도「케이스바이케이스」로 살수있기를 원하고 있다。

중공은 미국으로부터 군사기술을 받아들여 그들 스스로 무기를 만드는것을 원칙으로 삼고있으나 탱크파괴로켓과 미사일은 당장 사들일것을 원하고 있다。

미국이 F16전투기의 엔진을 중공에 판매할 방침을 세운것을 보면 美·中군사협력은 카터때보다 더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련을 견제키위한 美·中의 전략제휴관계는 이번 헤이그방문에서 상당히 발전될 것으로 풀이된다。

소련의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를 지배하고있는 베트남세를 꺾기위해 美·中은 구체적인 전략협의를 할 것이다。 美국무성고위관리는 헤이그 訪中배경설명에서 캄보디아가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련을 업은 베트남에 공포를 갖고있는 아세안국가들은 美·中이 臺灣문제로 티격태격하기를 원치 않는다。 아세안국가들은 美—中—아세안의 삼각협력으로 베트남 팽창을 막으려하기때문이다。

한반도가 美국무성 고위관리말대로 美·中의전략적공동관심사가될것도짐작이간다。

소련도 견제하는 美·中세계전략에서 한국은 중공과여러갈래로 얽혀지고 있다。

소련의 아시아 팽창과 지역전쟁도발에 맞서 아시아에서는 美·中·日、美·韓·日、美·中·아세안、美·韓·아세안등의 삼각협력원이 서로 교차한다。

그교차되는 원속에 한국과 중공이 얽혀져있다。 全대통령은 얼마전 타임지와의 회견에서 중공이 한국을 승인하면 미국의 北韓승인을 받아들일것이라고 말했다。

美·韓 그전군의 원이 한반도 평화전략차원에서 헤이그방중을 통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北京 방문길의 헤이그 中共방문에 앞서 홍콩에들른 알렉산더·헤이그 美國務長官(左)이 12일 머리·매클리호스 홍콩총독을 방문、조크를 나누고있다。 【홍콩11日AP電送=聯合】

6·5提議 세계70여國서 支持·환영

北傀、金正日 세습체제 굳히는데만 급급

全斗煥 대통령의 지난「6·5제의」에 대해 세계각국은 대부분 이를 환영、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을 지지하고있다。

「6·5제의」 1주일이 지난 13일현재 세계70여개국으로부터 이를 지지·환영한다는 정부당국 또는 언론의 논평이있었으며 이가운데는 親蘇노선의 제3세계국가인 이디오피아등도 끼어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 (日·6월6일字)=이번 제의는 ①회담의 議題를 완전히 자유로 했으며 ②南北사회의 상호전면개방 ③회담장소가 한반도 이외의 제3국이라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지난「1·12제의」를 더욱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수있다。 그러나 北韓은 최근 金日成으로부터 金正日로의 권력세습체제가 더욱 확립돼 내부체제의 정비강화에 안간힘을 쓰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다 한국정부를 파쇼라고 비난하는 사실등을 미뤄볼때 이번 제의의 실현은 곤란할것으로 보는 것이 외교소식통들의 見解이다。

▲BBC방송 (英·6월5일)=全대통령의 지난번北에 대한 平和제의 (1·12提議를 뜻함·註)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지지를 얻었다。 이번 제의는 특히 다가오는 아세안巡訪시에 더한층의 지지를 얻으리라 생각된다。

▲라·쉬스紙 (쉬스·8일字)=北韓의 金日成은 지난 1월의 全대통령제의를 「정직한 협상」이기때문에 거부했다。 6월5일 서울이 내놓은 새로운 제안도 또다시 같은 운명에 놓일전망이다。 金日成이 지금까지 거부해온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만약金日成이 자신의 善意를 입증하고 자신이 그저 시간을 벌려는것이 아님을 실증하려면 全대통령을 만나는 길밖엔없다。

▲사우드·차이나·모닝·포스트紙(홍콩·11일字)=지난「1·12제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제의도 南北韓간에 頂上회담을 하자는 것이며 회담장소는 金日成에게 일임하고있다。 이와 유사한 방문은 東西獨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평화적인 타협을 가져온바 있다。

▲인터내셔널·리포터紙(印度·8일字)=이번 제의는 지난「1·12제의」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제의는 한마디로 北韓이 한반도의 대국적 이익을 위해 적극 호응토록 촉구한 환영할만한 조치이다。

▲알·고무리아紙(이집트·9일字)=이제의는 처음 나온 제의도、 마지막 제의도 아닐것이다。 한국이 분단된지도 36년이 지났다。 이번 제의는 금세기의 커다란 비극의 하나인 南北분단에 종지부를 찍어 줄수도 있을것이다。 진정으로 중요한것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고 최소한 공통의 출발점에 합의하는 일이다。 서울과 平壤간을 왕래할수있도록 예도로를 다시개통해야한다。

▲라·리브르·벨지크紙(벨기에·6일字)=통일을 위한 새로운 협상제의로 볼수있다。 지난 1·12제의에 대해 北韓측은 통분서담만한전례에 비추어 金日成은 이번에도 거절할것으로 보인다。

▲알·아팔紙(수단·8일字)=분단의 고통은 더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 한국측은 北韓과 대화할수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있으며 이번 제의는 지난1·12제의에 이어 한국민의 이러한 의지를 거듭 표명한것이다。

美日「韓半島유사時」에 큰 見解差

—美·日 13차 安保실무자 회담

北傀軍·蘇극동군 증강은 安保위협

美、蘇艦길목 日 3海峽봉쇄 요구

日、專守방위·平和헌법 내세워 미온적

인사이드

【東京13日=宋孝彬특파원】호놀룰루에서 11일부터 3일동안열린 美·日안보실무자회의는 한반도에 대한 인식과 일본의 방위력증강문제를 놓고 양국간에 큰 견해차이를 보여줬다。

美국방당국은 北傀의 군사력증강과 소련의 극동군증강을 들어 한국유사시에 대비한 美·日안보협력과 일본의 방위력증강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은 專守방위와 평화헌법을 내세워 착실한 방위증강만을 되뇌며 즉답을 회피했다。

극동戰時의 대비란 구체적으로 北傀가 남침을 감행할경우 한국을 방어하기위해 美日안보조약에 따라 駐日미군기지를 원활히 사용할수있게 하는등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해두자는 것이다。 이것은 北의 남침이 있을때의 한반도有事에 대한 미국의 경고이다。

美日안보조약은 일본이 침략받았을때 대응해나가기 위한 「일본의 유사시」(5條)와 일본이외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위한 「극동유사시」(6條)로 나뉘어져있다。 「일본유사시」에 대한 문제는 이미 78년11월 美日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에 합의함으로써 결말이 지어졌으나 「극동유사시」는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여지껏 미뤄져왔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사또(佐藤)내각이 「극동유사시」에 대처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태도를 표명한 이외에는 미끼(三木)이후 모든 내각이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때에만 협력한다」고 되풀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美국방당국은 극동유사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때 미군을 다시배치하고 기지를 사용하며 전투기가 발진할것을 요구했다。 또 자위대의 방위시설을 동원한 협력、 수송 구조 탄약 연료등의 사전지장、 군수물자의 긴급수송및 해상·공중급유등을 제시했다。

미국측은 또 레이건대통령과 스즈끼일본수상과의 공동성명에서 명시한「동맹관계」와 역할분담에 관한 국제적인 실천방안을 협의 결정하자고 촉구했다。

소련이 5~8개 사단을 증설하여 극동군을 51개~54개사단으로 확대했으며 중거리 미사일 SS20과 장거리폭격기 백파이어를 배치、극동의 핵전략균형을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방위력증강을 NATO수준으로 올려 전쟁시 최소한 3개월동안의 독자적 전쟁수행능력을 가질수있도록 방위능력을 조속히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국방당국은 일본의 방위증강계획과 속도에 크게 불만을 표시하고 87년도 끝날 예정인 방위력증강5개년계획을 2년 앞당겨 85년에 완수하도록 촉구하고 특히 긴장된 中東정세때문에 제7함대의 中近東배치가 불가피해졌으므로 이에 따른 西태평양의 해상방위를 일본이 분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美당국은 北西태평양의 소련함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위해 P3C를 주축으로한 對潛초계기 1백대、 잠수함40척、 호위함 80척을 증강하고 주력전투기 F15 2백대、 조기경보기 E2C를 배치하자고 제의했다。

美측이 요구하고있는 해상방위 분담해역은 ①오끼나와에서 필리핀북부에 이르는 南西항로와 ②東京에서 이즈(伊豆)제도에서 괌島에 이르는 南東항로 1천3백마일이다。

미국이 원하는 방위력증강의 최종목표는 일단유사시에 일본이 소오야(宗谷)、 쓰가루(津輕)、 쓰시마(對馬) 3해협을 봉쇄할 능력을 갖추고 소련극동함대의 南進을 막는데 있다。

미국의 對日 방위력증강 요청은 문제제기로만 그친것이다。 일본측은 「새로운 방위약속은 하지않는다」는 스즈끼수상의 지시에 따라 평화헌법과 專守방위를 구실로 회답을 회피하고 7월에 열리는 와인버거美국방장관과 오오무라방위청장관의 회담때로 미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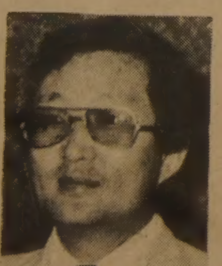
Century 21

금주의 새리스팅

1. 건물+가게
— 주매상 $4100 가격 $120,500
— 주매상 $3700 가격 $125,000
— 주매상 $4000 가격 $139,000
— 주매상 $4000 가격 $189,000

2. 집
— 방갈로 독채 3 베드룸 풀개지 양호 134,900
— 아파트 10채 달린집 229,000

3. 가게
— 주매상 $37 00 시간 오전9시~오후8시 주일 닫고 그로서리 없음.
쇼핑센터에 있는 기프트 샵등 다수 있음


황용현

경영상담
투자상담
모기지알선

로차부동산 318 BATHURST ST
(B)361—0880 (R)286—1548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533—4125

인도네시아 液化천연가스

年3백만톤 對韓공급

韓宇錫大使 예비회담열고 구체방안협의

한국, 生産施設 7억弗投入

發電·家庭연료 88년까지 2단계공사

【자카르타13日聯合=特】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5억달러규모이상이될 프로젝트로 연간 약3백만톤의 LNG(액화천연가스)를 한국에 공급하는 문제에관해 예비회담을열였다고 韓宇錫駐자카르타한국대사가 13일 말했다. 이같은 LNG판매로 인도네시아는 연간 수억달러의상품수입을 하게될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위치한 아룬지역부근에 전될할 LNG생산 시설에 최소한 7억달러를 투자할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슷한 액수가 한국 내수용시설을 위해 투입될것이라고 韓대사는 덧붙였다.

韓대사는 한국에의해,한국을위해 최초로 건설되는 연간용량1백50만톤의 이LNG생산시설은 오는 85년께, 같은용량의 제2차 생산시설은 88년께 각각 가동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은 대부분의 가스를 발전용에 사용하고, 일부는 도시가정용에 충당하게될 예정이다.

◇78년이후 중단됐던 西南해안간석지 개발사업이 82년부터 재개된다. 86년까지 완공될 5개사업에는 약1조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曺薰鉉, 徐奉洙에 不計勝

本社제정 名人戰도전5번기 1對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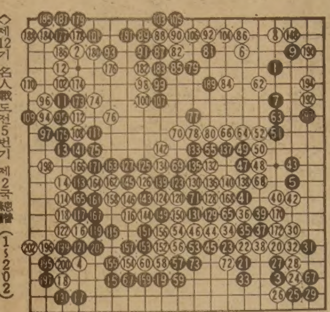
한국일보社제정 제12기 名人戰 도전5번기는 曺薰鉉名人과 도전자 徐奉洙7단이 1대1의 타이·스코어를 이룸으로써 名人位를 향한 두 숙적의 대결은 한층 불꽃을 튀게됐다.

13일 상오9시 韓國棋院(47·서울西大門區觀洞37의18)대에서 벌어진 제12기 名人戰도전5번기 제2국은 白을 쥔 曺薰鉉名人이 黑의 도전자徐奉洙7단을 2백2수만에 불계로 물리쳐 제1국에서의 패배를설욕했다.

이날 대국은 徐7단이 黑1·3·5로 中共式포석을 펼치자 曺名人은 白2소목, 4花點으로맞서 중반에 이르기까지 팽팽한 국면을 유지했다. 그러나중반에이르러徐7단이둔 黑93이 완착으로,3방면의 黑未生馬가 白에게 쫓기면서 전세는 白쪽으로기울어 中央黑8점이떨어져 바둑은 白필승의 국면이됐다.

徐7단은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이후 60여수를 두었으나 曺名人의 침착한 응수로 끝내 대세를 역전시키지못한 채 하오6시 2백2수만에 돌을 던졌다.

두기사의 소비시간은 제한시간 각5시간중에 黑3시간38분, 白3시간25분. 제3국은 오는25일께 두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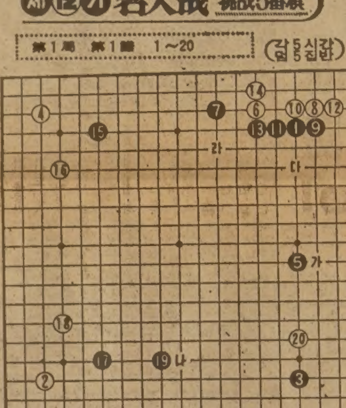


◇제12기 名人戰도전5번기 제2국總譜(1~202)
黑 도전자 徐奉洙 7단
白 名人 曺薰鉉 8단
※147~126, 160~149, 169~39의곳
(제한시간 각5시간 黑5호반공제)

바둑

제12기 名人戰 挑战5番棋

第1局 第1譜 1~20 (각5시간 덤5집반)



白(挑戰者) 徐奉洙
黑(名人) 曺薰鉉

드디어 만천하팬의 열광적 관심을 모은 曺·徐의 재대결은 막을올렸다. 한때 무관의야인으로 밀려났다가 작년말부터 권토중래한 徐前名人이 계속 3개타이틀을 공략하여세로 名人位를 탈환하느냐, 아니면 曺現名人이 강연히 분기하여 방어에 성공하느냐 [illegible]

흥망성쇠의 가름길

[illegible]

"檀君은 靑銅器社會의 史實"

언론인 鄭璟喜씨 「韓國學報」에 논문

檀君은 청동기시대에 實在했던 司祭=王이었으며, 독특한 청동短劍과거울이 그 考古學的유물이라는 연구가 발표됐다. 이연구에 의하면 檀君신화는 몽고 북쪽바이칼湖지역에살고있는 몽고계 부리아트족의신화에서가장 오랜 원형을 찾을수있다. 이 부리아트족 신화에서는인류 최초의 샤먼이 하늘에서 내려온새가 나무아래에 잠들어있는 여자와사랑을 맺어 태어났다고 돼있다. 따라서 三國遺事에 기록돼있는 檀君의 아버지 桓雄은 애초에 새의 모습이었을것이라고 이연구는 추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 청동기유물도 새에대한 신앙을 實證해주고 있으며, 山東반도에 남아있는 石刻畵도 檀君의 아버지가 새의 모습을 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檀君이 군림하던 사회는 大同江 하류뿐만 아니라 錦江하류에도 성립돼있었다고 청동기 문화의 분포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三國遺事에 기록돼 있는 「弘益人間」은 부리아트족 신화나 우리나라의 巫物에서 흔히 볼수 있는 유형의 정치사상이요, 정치이론이었다고 이 연구는 말하고 있다. 檀君에 관한 傳承을 고고학이나 종교사학, 또는 정치·사회인류학과 결부시켜 實在했던 역사적 사실로 단정한 이 연구는 종래의 신화학적 연구의 테두리를 벗어나 우리의 先史시대 연구에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韓國學報 제23집에 발표된 「檀君社會와 靑銅器文化」(鄭璟喜·한국일보논설위원)를 간추려본다.

◇단군의 실재를 말해주는 산동반도의 무씨사당의 석각화.
위 중앙의「날개달린사람」은 단군의 아버지 환웅을 나타내고 있다.

◇鄭璟喜씨

독특한 靑銅短劍·거울등 遺物로
아버지桓雄 새의 모습으로 추정

신령스런 새에대한 신앙은 우리사회에 보편화된 상당히 오랜 전통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20년대에서 30년대 초까지만해도 전국의 마을어귀에는 장대위에 하나에서 세마리까지 이르는 새를 앉힌 솟대를 볼수있었다. 이 솟대는 마을을 지키는 神으로 굿을지내는 일도 있었다 한다.

새에 대한 신앙은 고인돌무덤이나 청동기시대의 유물에도 나타나있다.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새는 두갈래의 나무가지위에앉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忠南大田에서 나온것으로 알려진 소위 「農耕文청동기」는 「아마도 가슴이나 배에매단 장식구였을것」이라고 [illegible]

[illegible] 현재국립중앙박물관에있는 8·5㎝높이의「鳥形竿頭飾」은 Y字모양의 나무가지에 두마리의 새를 앉힌것이다. 칼자루꼭지에 두마리를 새긴 短劍도 數個가있다.

[illegible] 아나 중앙아시아와 관련이있다고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蒙古북쪽 바이칼湖지역과 밀접한 관계가있는것으로 보인다. 문명의 발생과 인류최초의 위대한 샤먼의 탄생을 설명하는 부리아트족의 신화에서 [illegible]

大同江이외 錦江하류에도 군림

몽고바이칼湖부근이 神話源流

[illegible]

風速計

'강화도 摩尼山의 原名은 摩利山'

—외롭게 이름되찾기운동 펴는 李鎭京씨

江華 어란 이름속에는 머리(頭) 좋은 主山이란 의미가 [illegible]

「主山」이란 意味로 現地주민들 호칭

朝鮮實錄등 기록·학자들 考證 들어

[illegible]

不姙여인 소행인듯 未熟兒 증발사건

【大邱=聯】大邱제일산부인과병원 미숙아 증발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중부경찰서는 13일 [illegible]

校內 示威선동혐의 建國大生1명 拘束

서울東部경찰서는 13일 建國대학생 南七鉉군(20·정외과2년)을 [illegible]

LA僑民회장 15萬달러 流出직전 拘束

서울지검 南部지청은 13일 [illegible]

張吉山 (159)

黃晳暎 作 崔然石 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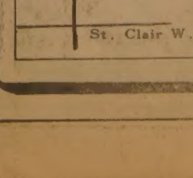
第四部 第一章 彌勒逆謀 (53)

그곳 사람들은 노승에게 말하였다. 이 여자는 아주 용한하던 여자이며, 죽은 뒤에도 거둘 이가 없어서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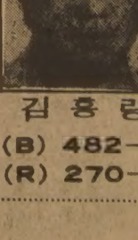
[illegible]

여환은 염불을 외우는 사이에 차츰 가슴이 진정되었다. [illegible]

INVENTORY
①스토아 인수, 인계 인벤토리
②스토아 정기조사 인벤토리
③소토아 납세대비 인벤토리
※주야 인벤토리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8301
(R) 252-2963 미스타 오

개업
꽃집
Jane Park Garden
* 생화, 조화, Plants, Gifts, 꽃바구니, 화병등 꽃에 관한 모든물품 대량구비.
* 모든 축하 꽃꽂이나,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 각처 주문 배달.


Jane Park Plaza
875 Jane St.
Toronto, Ont.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 생명교육보험
• RRSP(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 흥 량
(B) 482-0166
(R) 270-1158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노년회 야유회
벌써 여름이 문턱에 왔읍니다.
여러 회원들의 건강과 사업이 복되시기 바랍니다. 금번 노년회에서는 회원들을 모시고 아래의 딸기밭으로 야유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즐거운 게임과 바비큐가 준비중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가정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분도 빠짐없이 야유회에 참석하시게 하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1년7월4일(토요일)
오전9시 출발 오후8시 도착
장 소 : PENGILLEY FARM
회 비 : 1인당 6불50
점심각자지참(갈비와 김치, 드링크 제공함)
신청마감 : 1981년6월25일 오후4시
출발장소 : 한인회관(20 Mobile, Dr.)
사단법인한국노년회
회장 정 인 기

서울공고 정기총회 및 야유회
1981년도 토론토지구 서울공고 야유회를 이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가족동반 하시어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 6월20일(토)
오전11시(가족동반)
장 소 : MORNINGSIDE PARK
연락처 : 447-7602, 921-0624
※점심은 동창회에서 전부 부담하오니 모두 오시어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울공고 동창회장
김 윤 용

人生을 좀더 餘裕있게 살수없나

價値기준도 目標도 없이 모두들 뛰려고만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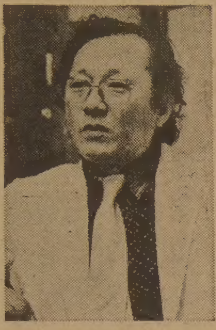
鼎談

列車사고·銀行갱·脫走소동·接種부작용등

핑핑도는 社會-그病理를 診斷한다

慶山열차추돌사고, 서울中谷洞 한일은행의 장난감권총및 진흙수류탄갱, 법원탈주범소동, 나약한 10대의 빈번한 자살, 장티푸스예방접종부작용등 굵직굵직하고 정신을 차릴수없는 사건들이 줄이어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사건의 빈발은 무엇을 뜻하며, 이처럼 세상이 핑핑 도는것같은때에는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잡을것인가. 아시아연합신학원원장 韓哲河박사, 漢陽大 의대교수 金光日박사, 여류시인 金惠淑씨를 한자리에 모아 요즘 사회의병리현상들을 진단하고, 그처방을 함께 생각해보는 鼎談을 마련했다.

◇金惠淑여사 <女流시인>



◇金光日박사 <漢陽大醫大교수>

◇韓哲河박사 <아시아연합신학원장>

▲韓=요즘 세상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딘가 구멍이 뚫려 무너져내리는 기분을 느낍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정신을 차릴수가 없을정도예요.

▲金惠=주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나 할것없이 제정신이 아닌것같은것이 특징이어요. 제자신이 반성해 보아도 그렇고, 학생·주부·학자·종교인을 까지도 다 무엇인가 과열된것이 생각입니다.

▲韓=양심의기준, 도덕적 기준 즉 가치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인것같아요. 일정한 목표가 없으니 조금만 실망해도 자기자신을 지탱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다고 할수 있읍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조직사회가 가지는 성격때문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조직도 큰 힘을 가지고 있어 한 작은 인간의 조그마한실수로도 큰 결과를 초래하니까요. 장티푸스예방접종부작용·慶山열차추돌사고등이 좋은 예지요.

▲金光=10대청소년들의 연이은 자살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나라 10대학생들의 가치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점수밖에없습니다. 국민학교때부터 배워온 것은 점수따는 것이 모두였을뿐 딴 보람찬 것을 배워본일 없는비참한 현실입니다. 점수를 못 따면 바로「나자신」이 없는 것과 같아요. 「난」의 유일한 백은 점수라고 할수 있죠. 점수에 대한 압박감에서 우울증이 생기고, 이때문에 삐뚤게 나가는 동기가 마련됩니다.

▲金惠=무언가 어느한 곳을향해 치닫고 있을뿐 조그마한 것이라도 차분한 마음가짐에서 해내려는 책임감이 없읍니다. 모두가 정상적인 코스를 달리지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듯 해요. 미장이는 벽을 잘 바르고 주부는 김치 잘 담그는 정등 자기 할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면 될텐데 모두가 너무 날뛰고 있읍니다. 요즘 아이들은 공부를 해도 자기방을 펑개치고 도서실에 가서 밤을 새웁니다. 정말 이상해요.

▲韓=어려움속에서 나마 먼장래에 이상을 품을수 있는 교육과 사회분위기가 아쉽습니다. 우리교육이 일본교육과 닮은 점이 많다지만 최근 일본에 가보니 교육이 잘되는 것 같았읍니다. 차분하게 자기성취를 향해 나갈수 있는 정신과 테크닉을 불어넣고 있는듯 했어요. 이에비해 우리교육은 너무나 살벌한것 같습니다. 金박사께서 점수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점수따기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려운 사회를 헤쳐나가려는 삶에 대한 투쟁인지는 몰라도.

▲金光=모두가 여유를 가질수 없었기때문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공통적인 폐단을 요약해 보면 첫째 모두가 정신이없는 것입니다 (웃음). 우리를 하는 것이죠.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해나가려는 마음보다는 어거지를써서라도 빨리 목적을달성하려 합니다. 공장을 지을때 안전시설을 하는등 먼장래를 내다 보지는 않고 우선 생산만생각하니까 안전사고가 납니다. 적당히 얼렁뚱땅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사회에서 아이에게만 순서를 밟으라고 할수는 없지않습니까.

▲韓=둘째는 법과질서를안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만 사실은 한없이 착합니다. 법과질서를 안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수가 없어서입니다. 한예로 택시 운전사도 자기생명귀중한지는 알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푼이라도 더벌어 입금액을채우기위해 교통규칙을 무시하며 운전하고, 그러다가 교통순경에게 적발되면 자기가 교통규칙을위반했다는 생각보다는『에이 재수없어』하고 속으로 욕을하게 되는것입니다.

▲金惠=中谷洞 은행갱의 해프닝도 그런맥락에서 원인을찾을수 있겠지요. 저도 15년동안 교단에 서보았지만 동료중에 많은사람이 「그만두고 무언가 다른 것 해볼」것을 궁리하는것을 보아왔읍니다. 아파트추첨 한번 잘하면 벼락부자가되는 사회에서 교사들이 강단에서는 보람을 찾을수는 없을것 같아요.

失職두렵고 집헐릴까 겁나고 誘拐가 무서워
「산다는게 不安」이 緊張과 危機意識심어
어딘가 무너지듯 너도뛰고 나도 뛰고…

▲韓=사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읍니다. 수없이 외국의 침략을 받아왔고 지금도 국토가 남북으로 갈려 긴장을 한시도 풀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역사적배경과 현실속에서 차분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여렵다고는 보지만 요즘은 너무하는것같아요.

▲金惠=韓박사께서 우리국민은 계속 긴장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 주부들은 거의 대부분 불안감을 안고 사는듯 합니다. 남편의 건강, 남편의 직장에 대한 불안은 거의 공통적일 것으로 생각해요. 『행여나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 되지나 않나』, 『밖으로만 나도는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풀러서지 나 않을까』하는 위기의식에 차 있읍니다. 이런불안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라도 부동산투기도 하고 부업을 가지려는 마음이 쌓는다고 보여집니다.

▲金光=말씀하신대로 가정주부의 불안은 사회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미래에 불안감을 갖고있는 주부는 자연히 남편과 아이를 그리고 자신까지도『뛰자』고 채찍질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사람보고 점잖고 여유가있다고했는데 지금은 그반대라고 생각해요. 차분하고 여유있는 삶이 아쉽습니다.

▲韓=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날 그날을 산다고합니다. 모든 재산도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주어진것이라고 생각해왔읍니다만 불안과 위기의식속에살다보니 삶의기본바탕에대한 생각도 많이달라져 여유를갖고 차분하게 살수없게된듯 합니다.

▲金光=한마디로하면 나부터도 모두 울화통이 나있는 상태라고 표현할수있어요.

▲金惠=울화통이 났을때는 중재하는사람이나 계층이있어야 하는데 우리사회엔 중재하는 층이 정말 아쉽습니다.

어떤「仲裁層」의 調和필요

▲韓=아무리 노력해도 다음단계가 보이지않는 사회구조탓하루빨리 정도에올려놓아야 합니다. 성취의 보람을 찾을수 없는 사회라면 곤란하지요.

▲金惠=어머니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성취의 보람을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견딜수없는 고통이에요. 살벌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것을 자주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金光=예쁜 것만 보다가는 점수가 적어 대학 떨어집니다 (웃음). 문교정책도 정신못차리게변해가고 있는데…

▲金惠=경제발전을 추구하다보니 모두가 정신없이 뛰고, 게다가 요즘은 물가까지 염치없이뛰고 있어요. 옛날에는 올라도몇%였는데 요즘은 몇십%입니다. 집을 마련해도 도시계획에걸려 헐리지 않을까 아이들이 납치되지않을까 염려되고 모든 사람이 친절을 베풀면 간첩이 아닐까 하며 두려워 질만큼 여유가 없읍니다.

▲韓=사회나 일반이 내걸고 있는 거창한 구호도 사회를 들뜨게 만드는데 한구실을 하고 있는듯합니다. 구호를 내세우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지나친 구호는 국민의 삶의 자세에 공백을 초래하지나 않을까하고 걱정스러워집니다. 국민이 자기몫을 다하고사는데 참여할 수 있는 정속적 회전실이 있는 구호가 아니라면 한번쯤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않을까요.

▲金惠=이런때 일수록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이 더 중요하겠지요. 옛날에는 유관순·나이팅게일·헬렌 켈러등 수많은 삶의 모델들이 아이들에게 제시되었읍니다. 물론 요즘은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어린이들이 대할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삶의 모델은 벼락부자나 벼락출세한사람, 코미디언, 연예인정도 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청백리상을 받은 한 세무공무원의 기사를 정말 감명깊게 읽었읍니다. 아이들에게 내세울수 있는 삶의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까지 했읍니다.

▲金光=청백리상을 받은 세무공무원같은 사람이 사회리더가 되어야 하겠지요. 이번에 그분에게 청백리상을 주고 바른 삶을 높이 떠받들어 드렸겠지만 그동안 그분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은 사람이 많았을겁니다.

教育부터가 중요한데 「점수」뿐인 學窓은 浪漫도 없고 抒情도 없고

「점잖은 風土」도 살려가야

▲韓=그런분에 대한 신문기사를 읽고 가슴절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이렇게 살면 된다』는 차분하고 여유있는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金惠=매스컴이야기가 나왔지만 요즘 TV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것처럼 느껴져요.

▲金光=TV나 신문이나 시청자및 독자에게 지나치게 영합하고 있읍니다. 이번 탈주범사건만해도 범인이 자수하게 하는데는 큰 공헌을 했다고 하지만 귀중한 지면을 몇면씩 할애하면서까지 보도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

▲韓=요즘 아침방송을 다시작한 TV를 보면 한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TV는 연예계에서 가치기준을찾고있는듯 합니다. 하루 빨리 연예중심의 문화가치기준을 반성해야 합니다.

▲金光=지금 우리나라는 국영TV의 규모와 영향력이 방대합니다. 그런 국영TV까지도 문화의 가치기준을 연예계에 두고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니 한심있습니다. 국영TV로서의 해야할일이 많이있을텐데요.

▲金惠=인생의 참뜻을 배울만한 모델은 제시하지않고 인기인만을 아이들의 스타로 만들고 있음니다. 문화행사는 가요제만이아니더라도 얼마든지있지않겠어요.

▲韓=매스컴도 역시 차분하고 여유있는 가운데 양식을 되찾아야 하겠지요. 국민들이 차분하고 여유있게 살수있도록 조그마한여유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좋아질때를 무작정 기다릴수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런점에서 종교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金惠淑씨께서 사회에는 중재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종교가 중재역할을 할수있다고 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종교가 사회의 불안요소를 해소할수 있는 중재자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편이라고 까지 한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인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활동하고있어 이중재역할을 더 훌륭히 해낼수있을것으로 봅니다. 전세계는 꾸준히 발전해가고있지 후퇴하고있지는 않습니다. 차분하고 여유있게 살려고 노력하노라면 우리 현실도 보다 나아지리라고 낙관해보고싶습니다.

【기록·정리=李炳日기자】

千字春秋

法廷脫走犯

金英斗 <서울大 法大教授>

서울남부지원法廷脫走犯사건은 또하나의 衝擊的인 사건이었다. 法院에서 재판을 받고있던 범인들이 矯導官의 監視를 뚫고 주는 凶器를 입은채 법원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集團脫出을 하였다는 사실은, 옛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한사건인 것이었다.

최근에 잇달아 일어나고있는 異常시리즈의 한토막이라고나할까. 옛날 어수룩한 시대에 있었던 옛이야기를 듣는듯 잠시당황한 느낌을 어떻게 수가없다. 그러나 이사건은 분명히 20세기 末의 首都서울 한복판에서 백주에 일어난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그범인에 관한 提報者에게는 천만원의 懸賞金이 걸리고 전국의 수사기관이 총동원되어 며칠동안수사를 벌인끝에, 다행히도 犯人들의 自首로 사건은 결말이나고 있는것처럼 보인다. 이같은 結末은 당연한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결말이 아니라 그과정에있다.

이 異常한 社會에서 이러한 구경꾼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중범자들에 전국의 検·警이 나서고 천만원의 懸賞金까지 걸어 국민의 협조를 요청 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중요한것이다.

따지고 보면 한달전에 일어난 京釜線 列車事故가 한 기관사의 不注意에 기인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사건을 이해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共犯者들은 같은 감방에 수감하여서는 안된다는 기초적인 行刑規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不注意로, 또는 無誠意로 그러한 기초적인 규칙을 무시한데서 이 사건의 發端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국민이 자기의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責任있게 지키는 대신 소위 「적당하게」 처리해온 오늘의 風潮에 이사건의 원인이 숨어있는 것이다.

이점을 깊이 반성할 일이다.

新風土記

九千洞 <全北 茂朱>

吳贊植 <作家>

山水畵같은 90리의 大溪谷 開發 한창

『저녀의 자속 보람개. 향이비 말을 안듣고 뻥뚫려. 풀꺼져 그래와, 무주 구천동으로 귀양 안보내주리나』 어릴 때, 화가 치밀치신 어른들로부터 숱하게 들어본 九千洞이다. 그만큼 九千洞은 첩첩 산으로 둘러싸여 90여리나 뻗어있는 溪谷 양쪽의 구릉이 험준하다. 거기에다 사람들의 步行이자 유통지 못할 정도로 최악의 交通취약성 때문에 「귀양」의 適地로 꼽혀온 곳이다.

九千洞은 德裕山 최고봉인 香積峰(海拔 1,594m)을 起點으로 뻗어내리는 장장 90여리의 계곡에 千가지 이상되는 草木이 뒤덮인, 신비로운 山水畵의 세계다. 人工의 손때가 전혀 묻지않는 奇岩怪石들이 울창한 숲속에서 원시적인 자연의 내음을 풍긴다.

茂朱邑에서 九千洞까지 38km의 길은, 확장공사 때문에 雨煙을 풀고 달리는 기분이다. 많은 먼지로해서 車窓을 굳게 닫고보니 버스는 구름속을 나는 비행기 같다. 도중에 있는 羅濟通門도 차창밖으로 실루엣만 부각된다. 버스로는 한시간 거리. 10여분을 제외하고는 딸꾹질하듯 용트림해대던 버스가 멎는 곳이, 현재 德裕山국립공원 개발의 일환으로 집단시설단지를 비롯한 각종 편의사업을 한창 벌이고 있는 雪川面三公里다.

75년 德裕山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후 바로착공, 오는 82년까지 완공을 서두르고 있는 이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1백2억여원의 막대한 규모다. 신단지 개발계획에따라 구단지 1백24동의 건물이 철거되는 바람에 완공된 상가(2동) 지역으로 내려왔다는 城東玄씨(49·三公里418의23)는 아직 상가 2동이 덜지어졌을 뿐더러 호텔(1동)여관(30동)등의 기초공사가 막 시작되어서인지 별로 관광객들이 들르지 않는다고말한다.

하늘이 만져질 듯이 높은 峽谷 그아래로 마구 파헤쳐놓은 집단시설지구의 황간 흙더미는 인간의 무절제한 자연개발慾求를 말해주는듯 정감이 없다. 하지만 땡볕아래, 흙먼지 섞인 건조한 바람 속으로 七淵폭포의 계곡을 따라 완공시켜 놓은 대규모 캠핑시설이랑지, 그 부대시설, 바른쪽 산 기슭에 몇가구 남아있는 귀틀집은 천혜의 관광지다운 면모를 아낌없이 자랑하고 있다. 82년도의 세계잼버리대회가 이곳에서 개최됨에 따라 서둘러완공한 대규모 캠핑시설은, 잼버리대회 이후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自然學習場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德裕山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金東씨(40)는 설명한다.

九千洞 德裕山麓에서 始發한 王生水 줄기가 安心臺-九月潭-印月潭등을 거쳐 흐르는 맑고 시린 물(한여름에도 섭씨15도를 유지)을 비롯, 沼潭과 폭포를 이루는 層岩·洞窟 등이 나무랄데 없는 33景을 연출시키고 있다고 金소장은 말한다.

九千洞의 유래에 대해서는 成佛功者 9천명의 佛道修行이 이곳에서 이뤄진데서 연유된 것이라고 혼용되어 사용되다가 결국 한자표기의 洞이 되었다는 설과, 90리 멀고 먼 첩첩산중이라는 뜻으로서 九重이 처처한 산골짜기에 千가지 이상되는 草木이 있다해서 九자 千자를 따 이름을 붙였다는 유래에 수긍이 간다고 그는 덧붙인다.

산이 우람하고 계곡이 깊기 때문에 사시사철 색다른 자연자원을 맛볼수 있어 철쭉꽃(봄), 綠陰(여름), 단풍(가을) 雪景(겨울)등 다양한 색상의 신비한 절경이 연출되고 있지만, 역시 이곳의 진미는 여름이다. 深訪客은 추세로 미루어 보아도 칠팔월이 가장 피크를 이룬다.

◇自然의 神秘가 숨쉬고있는 茂朱九千洞계곡의신비. 九千洞에도 개발의 손길이 미쳐, 앞으로 한두해지나면 전혀 다른맛을 줄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신단지가 들어설 것에대비, 하루 2천톤을 給水할 목적으로 커다란 상수도 시설이 연내 착공예정으로 印月潭에 시공중이다.

이제 일이년뒤면 九千洞도 새로운 관광단지 모습으로 깨끗이 단장되어 우리앞에 그 면모를 드러내놓을 것이다. 서울의 연립주택촌을 들어선듯한 여관풍과 슈퍼마킷을 연상시키는 商街. 너무 번지르르 도시 냄새가 물씬한 觀光단지로 탈바꿈 될것이 아니겠는가?

제아무리 산세가 우람하고 계곡이 깊은 천하 名山이라해도 많은 人家가 집단으로 돈두락을 이루고 있으면 산에 오는 기분이 나지 않으며 신비감이 없어질것은 필연적이다. 아직은 九千洞에서 칠팔십리 깊숙이 들어가는 峽谷으로 예닐곱가구의 人家가 띄엄띄엄 떨어져있어 「자연그대로」의 자연경관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 나무가 흔해서인지 아주 원시적으로 지은 집도 가끔 눈에 띈다.

井字모양 통나무를 포개어만든 귀틀집이 그것이다. 이러한 九千洞에 새로운 관광단지가 조성되고나면 「무주구천동으로 귀양보내야겠다」는 말도 이제는 아득히 먼 옛날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로밖에 남지 않게 될것이다. 그런 변화를 한번쯤 곰곰 생각해볼일이 아닌가.

서울한의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 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 · 신경과 · 부인과 · 침구과 · 산후보약(왕진함)

주소 :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 (Kipling-Dixon)

한의사 김 장 석

☎ : 247-9347

참 행복을 원하십니까?

⬇

생명의 말씀

CITY.T.V.

CHANNEL 79

CABLE 7

SUNDAY AM 9:30-10:00

SINGER

미싱계의 왕 싱거!

스페샬 MACHINE & 캐비넷포함 ONLY $249.99

바느질 배우는 낮과 저녁반 코스를 제공

우리는 모든 종류의 미싱을 취급합니다.

TRADE-IN도 합니다.

CALL : MR. ARMAND

620 BLOOR ST. W. TOR. (킴스카메라 건너편)

☎ : 537-4881 or 537-3841

NIPPON VIDEO CENTRE

1993 Danforth Ave. Toronto, Ont. Tel. 698-06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일본비데오센터

BETA, VHS두종류

※일본, 한국 테이프 준비됐읍니다 두종류의 테이프가 있읍니다.

- 비데오테이프레코더의 판매
- 비데오테이프대출(빌려줌)

월, 수, 토 : 오전10시~오후6시

목, 금 오전10~8시 회원모집(특별할인)

화요일은 문 닫습니다. 우드바인서쪽 1 block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G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진 씨 안 경 점

각종 안경류와 콘텍트렌즈 전문, 소프트 콘텍렌즈 90달러

★콘텍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 영업시간 ●

월~토 9 : 30AM~6 : 00PM 월~토 11AM~7AM

※ 이 광고를 가지고 오시는 분께 20% 할인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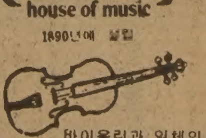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 · 악기수리 · 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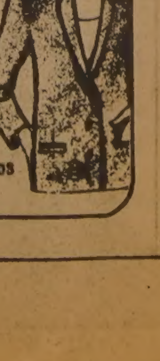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 좋고 가격좋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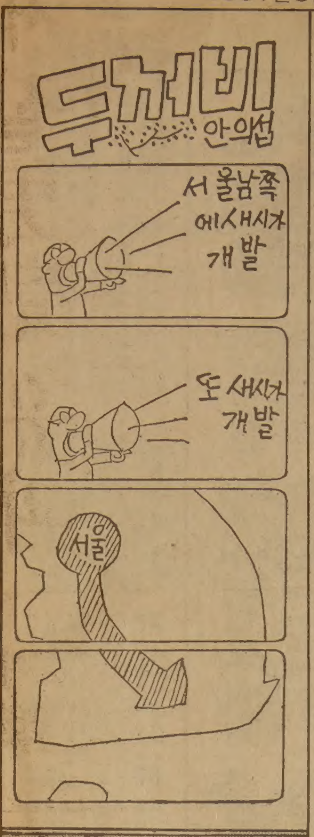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일요일 : 오후3시~7시

706 BLOOR ST.W. ☎ : 534-2003



새한칼라현상소
결혼·돌·회갑 출장촬영
스튜디오 완비(각종증명사진등)
630 Bloor St. Tech Photo Finishing Lab.
(B) 535-7772, (R) 741-2842

光州一高、培材꺾고 8強1着

靑龍旗야구

光州一高가 培材高를 6—2로 제압하고 제36회 청룡기쟁탈 전국 중고야구선수권대회8강대열에 제일먼저 뛰어 올랐다。13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4일째 2회전 경기에서 光州一高 우완 에이스 車東哲은 4회말 2타점의 동점 우전적시타를 날리고 6회이후 무안타로 막아내는등 공수에서 큰활약을 보여 6—2로 이기는데 수훈을 세웠다。

한편 清州高와 中央高대전서는 清州高가 3회말 대량 6득점、10—5로 이겼다。光州一高는 培材투수 金兌熙의 컨트롤 난조로얻은 독점 찬스를 살리지 못하다 7회말 3번 崔盛浩가 좌월2점 홈런을 날리는등 2안타

6—2

와 결정적인 패스볼로 대량 4점을얻어 승세를 굳혔다。

한편 중학부1회전 경기에서는 慶尙中이 培材中을 4—1로、土城中은 中央中을 4—0으로 각각 꺾고 2회전(8강)에 올랐다。

나의 이력서

〈題字·玄信圭〉

玄信圭 ㊿8

스웨덴의 충격

초기에는 교잡육종을 주로 했으나 임업시험장 육종지장으로 확대되면서 선발육종에도 착수했다。선발육종이란 국내에 있는 수목중 뛰어난 수목을 골라 秀型木으로 지정하고 그 나무에서만 가지를 꺾어 接木하고 채종림을 조성함으로써 秀型木(플러스·트리 혹은 엘리트·트리)과 똑같은 우수한 자질의 묘목을 생산해 내는 것이다。

우리는 각도에서 1명씩의 수험특선발요원을 채용、연구실에서 철저한 교육을 시킨다음 전국으로 내보냈다。수형목을 찾아 任慶彬교수와 나는 각지에 산재한 천연림이나 인공림을 뒤지며 방방곡곡 산길을 순례했는데 발이 부르트기 몇차례인지 나무가 서있는 곳이면 발길이 미치지 않은 땅이 없을 정도였다。이리하여 지금까지 골라낸 수형목은 12수종에 4백여그루에 이른다。이들 수형목에서 가지를 꺾어 접목한 채종림이 오는 83년엔 7백50여

秀型木 지정…우수種만 골라 造林

정보가 될것이고 8만여정보의 산에 심을수 있는 종자를 얻어낼수 있게된다。

선발육종은 스웨덴에서 발전되었고 이로인해 스웨덴은 세계제1의 펄프수출국으로 부상할수 있었다。

지금부터 1백20년쯤 거슬러올라간 스웨덴은 감자외에 다른 농작물이 자라지않아 농민들은 먹는문제가 첫손꼽히는 고통이었다。물론 농작물의 不毛는 추위때문이었다。견디다못한 청년농군들이 자금을 각출하여 육종학자를 찾아 스웨덴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농작물을 만들어 주도록 간청했다。학문밖에모르던 그 학자는 陳情의 순정을 물리며 개량품종을 만들어 보급했고 그 개량품종을 팔아 얻은 수익으로 종자를 농민들에게 배당도했다。최근엔 그 수익이 연8천6백만달러에 이르러 출자농민이 부유해진것은 물론、만성적인 식량난은 해소되었다고 한다。

이 전통이 삼림개량에도 전파적용되었다。스웨덴의 임야는 75%가 私有林인데 지난 36년에는 山主들에게도 농민들과같은 깨달음이 있었다。山主들은 그들소유 임야의삼림이 차츰 쇠퇴해감을 보다못해 자발적으로 임목육종개발협회를 조직하고 학자를 찾아가 그이유의 규명과 복구방법의 연구를 의뢰했다。

이에따라 론손박사、앤더슨박사등이 주축이되어 기후가 각기다른 북부 중부 남부 세곳에 실험실을 짓고 전국의 산을 샅샅이 돌았다。

그결과 좋은 나무는 잘라내고 나쁜나무만 놔두니 유전학적으로 삼림이 쇠퇴할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그래서 그들은 전국의삼림을 1·2·3급림으로 나누고 조림할때는 반드시 1급림의 우수한 나무에서만 종자를 따서 사용토록 규제하고 서둘러 秀型木을 지정、격리된 장소에 채종원을 만들어 종자를 생산해 냈던 것이다。

스웨덴은 2차전기간동안 전쟁에 아랑곳없이 이일에만 전념하고 있었다。따라서 그들은 전후엔 벌써 정상의 산림부국으로 군림할수 있게 되었다。놀라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뒤늦게 정신을 차린 각국은 스웨덴을 모방、선발육종에 눈을 돌리고 경쟁적으로 같은 사업을 벌이기에 바빴다。日本도 54년 스웨덴의 학자를 초청、선발육종에 정열을 쏟아왔다。그 총계는 우리에게는 더욱 골수밖에 없을 것이었다。스웨덴의 경험속엔 피눈물을 흘려도 모자랄 교훈이 담겨있는 것이다。

선발육종에 있어서는 次代검정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흠이 있다。秀型木이 선천적으로 우수한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있는 자리가 마침 빼재지라도 죽어서 거름이 되기때문에 우쭉 자란것인지를 식별해 내려면 씨를 따서 다음 代(次代)로 성장할때까지 바로 그 20~30년을 기다려 살펴봐야한다。20~30년의 기다림을 단축하기위해 종자안에 있는호르몬류의 촉매능력을 검사하는 실험도 하고 있는 중이다。

◇낙엽송秀型木 전남1호。전남 光陽郡玉龍面蛮谷里 연습림에 서있는 이 수형목은 지난61년10월에 선정되었는데 그당시 樹齡이 42년으로 키가 20.8m이고 직경이 34.3cm에 이르렀다。

山林富國으로 성장…全世界가 이 방법 채택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花郞、샤토루(佛)와 비겨

大統領盃 國際축구

競技첫날 한국 공격主導했지만 슛亂發 1-1

이날 8만관중이 운집한가운데 벌어진 개막경기서 홈그라운드의 花郞은 프랑스2부리그 3위팀인 샤토루팀맞아 시종 공격을 주도했으나 회중 슛이 정확치 못해 1—1、무승부를 기록、예선을 마에 부담을안고 15일하오5시 大田서 西獨과 예선두번째 경기를 갖게됐다。

西獨의 2부리그 잘브리켄팀은 후반5분 헬리·페의 결승골로 日本대표팀을 1—0으로 물리쳤으며 강력한우승후보인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팀은 말레이지아 대표팀을맞아6—0으로승리、A조에서 각각 1승을올렸다。

한국은 전반8분 신진FW 邊炳柱가 李康助의 도움을 받아 땅볼 슛으로 선제골을 뽑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주도해나갔으나 후반6분 프랑스의 FW 베아비아에게 문전서 다이빙 헤딩슛을 허용하여 1—1、타이 스코어를 만들었다。

한국으로서는 비경제적인 축구를 한셈이다。한국이 전반에서 11개의 슛으로 1골을 만들어낸 반면 프랑스는 후반 한차례의 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다。

경기내용서는 압도적으로 한국이 우세했지만 전반에서 丁海遠과 邊炳柱등이 세차례의 결정적인 득점기회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고 후반서도 邊炳柱와 趙廣來가 두차례씩 기회를 놓쳤다。

프랑스 2부리그 3위팀인 샤토루 선수들은 아직도 피로가 완전히 가시지않은 상태였으나 문전 플레이가 다이내믹했고 FB 장페、CF인 벨레스트로가 돋보이는등 묘기를 보여주었다。

邊炳柱(20·연세대)는 개인통산 12골 花郞에 발탁 지난해 (

막경기서 선제골을터뜨려 이목을 끌었으나 이후 네차례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쳐 스스로 회비의 주인공이 되었다。

한국은 유력한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를비롯하여 西獨 프랑스 日本 말레이지아와 함께 A조서 격돌하게되어 이날의 승부는 순탄한 향진에 쐐기를 박은셈이다。

◇제1일전적
▲A조

한국 1	(0-1)	(1-0)	1 프랑스	
(1무)			(1무)	
서독 1	(1-0)	(0-0)	0 일본	
(1승)			(1패)	
아르헨티나 6	(1-5)	(0-0)	0 말레이지아	
(1승)			(1패)	

아르헨、말에 大勝
西獨도 日눌러 先勝

초여름의 축구잔치인 제11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가 13일하오 서울운동장서 全斗煥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14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이번 대회는 지난해 우승팀인 花郞을 비롯하여 12개팀이 출전、A、B2개조로 나뉘어 오는22일까지 예선을 벌인뒤 각조1、2위팀이 24일에 준결승、26일에 결승전을 벌인다。

한국女2位
세계洋弓대회 蘇와 4點差

【푼타알라12日AFP=聯合】한국궁도여자대표팀은 12일 이탈리아의 푼타알라에서 속개된 제31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3일째 경기에서 朴英淑(韓體大) 黃淑珠(계명대)의 활약에 힘입어 단체종합 5천5백48점을 기록、전날 공동2위였던 中共을 제치고 단독2위로 올라서서 선두를달리고 있는 蘇聯을 4점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여자개인종합에서는 朴英淑과 黃淑珠가 각기1천8백58점과 1천8백57점을기록、6、7위를 달리고 있으며 기대를 모았던 前대회 챔피언 金珍浩는 10위권에도 들어서지 못했다。

남자단체전에서는 현재 핀란드가 단체종합서 5천5백72점을 차지、선두에 나섰으며 蘇聯과 美國은 각기 5천5백69점、5천5백44점을기록、2、3위를 유지했다。

한국남자팀은 계속부진、남자개인종합에서 한사람도 10위권내에 들지못하고 있다。

◇3일째전적(종합)

▲여자단체종합 ①蘇聯 5、552점②한국 5、548점③中共 5、532점

▲여자개인종합 ①나탈리아·부투소바(蘇) 1、876점②마릴린·루불리(美) 1、867점③홍·푸(中共) 1、863점④알리차·치스코브스카(波) 1、861점⑤파이비·메릴루오토(핀란드) 1、860점⑥朴英淑(한국) 1、858점⑦黃淑珠(한국) 1、857점

▲남자단체종합 ①핀란드 5、572점②蘇聯 5、569점③美國 5、544점

한국、말聯과 1차전
10회 亞洲학생축구

【자카르타12日AP=聯合】한국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거행되는 제10회 아시아학생축구선수권대회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태국과 함께 B조에 편성、22일 말레이지아와 1차전을갖는다。

대회참가 8개국은 추첨에 따라 A、B 2개조로 나뉘어 리그전을 벌인후 각조의 상위2개팀이 준결승을 거쳐 패권을 가리게된다。

◇한국팀 대전일정 ▲22일=對말레이지아 ▲24일=對태국 ▲26일=對싱가포르 ▲28일=준결승전 ▲29일=결승전

투포환 新記錄
李城雨、17年만에 경신

【釜山=聯合】제35회전국남녀대학대항 육상경기대회가 18일 九德경기장서 개막、남자투포환서 東亞大의 李城雨는 14m61을 던져 64년 林鍾根이 수립한 한국기록14m55를 17년만에 6cm 경신하고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국제J陸上

제4회멕시코주니어육상대회에 출전한 한국의 金鍾鎰은 남자넓이뛰기서 7m98의 한국신기록으로 우승했다고 선수단이 13일 알려왔다。종전한국기록은 金鍾鎰이 갖고있는 7m59였다。

한편 남자1백m에 출전한 張在根은 10초5로 우승했으며 여자1천5백m서 金順花는 4분40초70으로 2위를차지했다。

東亞高 1승기록
전국종별 핸드볼

【光州=聯合】제36회 전국종별 핸드볼선수권대회 4일째 남고부 경승리그에서 3연패를 노리는 東亞高는 大同機工을 26—9로 대파하고 1승을 기록、호조의 스타트를 보였다。(13일 光州실내체)

여름 籠球학교 국내서 첫開設

내년 여자실업농구팀을 창단하는 信用保證基金이 사장 [illegible]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8월1일 여름농구학교를 개설한다。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개설되는 농구학교는 이미 농구 본고장인 美國에서는 널리 성행하고있는 제도。또한 방학 농구학교를 통해 많은 선수들이 배출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농구보급의 일환으로 마련한 여름농구학교는 남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비농구선수를 모집대상으로 하고있다。

식인발굴을 겸한 여름농구학교는 농구에 흥미를 가지고있는 청소년들에게 기본기와 기초기술을 가르쳐주고、가능성을 타진해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여름농구학교에 지망하는 학생은 고교 1、2학년 재학생이어야하며 남자 신장은 1m85、여자는 1m70 이상이어야 한다。

크 로 바 인 쇄 소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면·성실을 무기삼아 날로
발전해가는 크로바인쇄소는
지난 5월2일부 하기장소로 확장
이전하여 더욱 신속한 서비스로
봉사해드리고 있아오니,
교민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읍니다.

● 그라픽·디자인부 : 오랫동안 뱅쿠버·선에서 활약한 미스타 리께서 수고하고 있읍니다.
● 인쇄부 : 각종카드, 플라스틱 백, 광고지, 뉴스레타
● 광고부 : 우체국 위탁배달, 상업광고디자인, 타이프세팅, 봉투집어넣기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 : (B) 251-9587, (R) 252-7491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話

"사장님, 웃을땐 근육이 1백40개가움직이지만 찡그릴땐 6백40개나 움직인다는걸 책에서 읽은적이 있죠"

"자네 지금 봉급을 올려달라고 말하려는 거지, 안그래?"
"그렇습니다, 사장님"

"웃을땐 근육이 덜움직여도된다는걸 잊지마십시오"

"그건내 근육이야! 내 것가지고 내맘내키는대로 할수있단말야!"

가 나 안 상 사

무료견적, 무료 I 레부.
무료공사, 싼공전,
카텐, 카펫 브라인드,
각종카바.

유 원 덕
2390 LAKE SHORE BLVD. W.
☎ : 252-4857

세살男兒 유괴

20代여인이 데려가

父母들, 傳單… 警察 수사나서

電

10일 상오8시30분께 서울 永登浦區大林1洞912의92 앞길에서 이웃네 이원직씨(35·新道林시장계란도매상)의 장남 현석군(3)이 20대여자에 의해 유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현석군은 누나 민정양(6)과 함께 손잡고 新道林시장쪽으로 가다 키1백50㎝가량의 20대여자가 현석군에게 접근, 과자를 사준다며 데리고가서 돌아오지않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경기1가9204호 포니승용차 운전사 김여용씨(35)에 의하면 길옆에 차를 세워놓고 쉬고 있을때 현석군과 민정양이 손을잡고오다 20대여자가 나타나 애기를 건후 민정양 혼자 시장쪽으로 걸어갔고 현석군은 이 여자를 따라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는것.

한편 현석군을 유괴해간 20대여인으로부터 13일하오 현석군의집에 두차례 전화가걸려왔다. 현석군의아버지 이씨에 의하면 이날 하오7시30분께 20대여인이 전화를걸어와 『내가 현석이를 데리고 있다. 돈도 필요없다. 1주일만 기다려라』고 일방적으로 말한뒤 다시 전화를 끊고 3분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 『지금 永登浦시외버스정류장근처에 있는데 1주일후에 약속을해 만나는것이 어떠냐』고 말한뒤 현석군의 아버지 李씨가 『그럼 지금약속을 하자』고 말하자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한뒤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계획적인 유괴로보고 목격자김씨의 진술에따라 키1m50㎝단발머리의가냘픈 체격의 20대여인을수배했다. 당시 이여자는 체크니트 블라우스 분홍색얼룩무늬가 있는 디스코바지차림이었는데 손에는 밤색핸드백을 들고 있었다는것.

현석군은 당시 베이지색재킷 노란색바지차림에 백색 샌들을신고 밤색야구모자를 쓰고있었는데 현석군의 인상착의는 눈이크고 얼굴이둥근편으로 코는약간 들창코에 곳곳에 마마자국이있고 키는85~95㎝가량 된다는것.

◇유괴당한것이확실한 李憲錫어린이

梁李道군 第2탄생

○○○○○○○

소년은 이제 가냘프고 여렸던 「어제의소년」이 아니다. 금방이라도 터질듯하던 악화했던 가슴속에서 지금은 힘찬 생명의 맥박이 물결친다. 梁李道군(11·한국일보5월23일자 사회면 톱기사)의 심장수술이 완벽하게 성공한것이다. 새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며 소년은 이제 큰배의 선장이되는 꿈을 제대로 키워갈수있게 됐고 새로 태어난 소년을 바라보는 이웃의 다정한 눈길에는 섬의 희망이 영글어 간다.

○○○○○○

李道군이 심장수술을 받은지 13일로 열흘. 이날 李道군의 가슴을 절개했던 의료팀은 소년에게 제2의 삶을 선언했다. 후유증을 면밀히 관찰해오던 수술팀이 「완전회복」의 진단과함께 「더이상의 관찰이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린것. 이제 퇴원할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李道군은 병실을 찾은 기자에게 가슴을 활짝펴보이며 『아저씨, 빨리 퇴원하고 싶어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하루라도 일찍 於義島로 되돌아가 친구 종필이, 용권이에게 서울얘기를 신명나게 해줄 [illegible]

『李道의 영원한 건강을 빈다』고 썼다. 경남固城이 고향인 李圭李건설부차관도 금일봉과 함께 격려편지를 보냈다. 李차관은 신문을 본뒤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이름만 적어 보냈는데 柳應斗교장(55)이 우연한 기회에 편지의 주인공이 건설부차관임을 알아냈다는 뒷얘기. 한편 서울 銅雀區 약사회(회장 金義燮·38)는 당초 약속대로 오는16일 於義島를 방문, 자매결연식을 갖고 於義島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된다. 於義국교 5학년생들을 서울로 초청 [illegible]

[illegible]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일보 안내광고란

선데이 스토리

[illegible]

◇이젠 축구도 할수있다

『제2의 탄생』을 만끽하고있는 梁李道군의 미소. 이제 운동장 구석에 서서 볼을 주워주는게 고작이었던 이소년은 친구들과 어울려 거친 축구도 해낼수 있게됐다.

流星의 賦 <105>

紀昌의 길 ⑭

李炳注 作
李友範 畵

영월을 떠난뒤 닷새째 되던 날 홍계남 일행은 대관령(大關嶺)을 넘어가고 있었다.

남빛으로 하늘이 잔뜩 찌푸리고 있더니 그들이 대관령 중복에 이르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 내릴만한 계절이기도 했다. 벌써 동짓달에 접어들고 있었으니 말이다.

달손은 길을 걷고 있는 동안 줄곧 해오던 초한전(楚漢傳) 얘기를 중단하고

『눈이 깊어지면 올 수도 갈 수도 없게된다』

며 걸음을 빨리 했다.

순네와 계남은 손을 잡고 가파른 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어느덧 두 사람의 사이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을만큼 친숙해 있었던 것이다.

『눈이 오니까 신난다』

계남이 말했다.

『나도 눈이 좋아』

순네가 맞장구를 쳤다.

순네는 웅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시체를 보지도 못했으니 웅세가 죽었다는 실감이 없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눈을 즐기고만 있을수 없었다. 높은데로 올라갈수록 눈이 짙어만 가더니 산마루에 이르렀을 땐 함박눈이 되어 거의 길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

근처에 인가라곤 보이질않아 어떠한 곳도 없었다. 어떻게든 대관령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달손이 계남과 순네를 돌아보고 말했다.

『천신만고 해서라도 이 산을 내려가든지, 여기서 얼어죽든지, 두 길 가운데 하나 밖에 없다. 설마 얼어죽을 수야 없지 않는가. 어떠하든 낭떠러지만 피해 산쪽으로 몸을 붙여 길을 찾아 내려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선 당나귀를 앞세워야 한다. 이럴 때 길을 찾는 능력은 당나귀가 사람보다 낫다』

달손이 당나귀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랐다. 순네와 계남은 달손이 걸은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겨울해는 이럴 경우 거짓말처럼 짧은 것이다. 가까스로 험한 절벽을 피했을 무렵 해가 저물었다.

『낭떠러지를 피했으니 큰 위험은 없겠다만 그래도 군데군데 위태로운 데가 있을 것이니』

하고 달손은 나무가지를 꺾어 들더니 자기 앞의 땅을 두루 살피며 걷기 시작했다. 이때는 나귀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가 앞을 섰다.

한발짝을 걷곤 나무가지로 앞을 더듬어 단단하면 걷고 하는 식으로 하자니 시간이 무척 걸릴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험한 내리막길을 어둠속에 걸으려니 이런방법 이외의 방법이 있을 까닭이 없었다.

그렇게 한밤중까지 걸려 그들은 겨우 평지에 내려설 수가 있었고 가까스로 인가를 찾아들 수가 있었다. 그 인가는 주막이었는데 눈에 갇힌 손님들로서 가득차 있었다. 좋은 봉루에 손님이 너무나 붐벼 잘곳이 없을수가 없어 모두들 애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달손의 일행이 나귀를 끌고 들어서서 눈속에 대관령을 넘어왔다고 하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다 대관령을 넘은 일행 가운데 여섯살 난 소년을 발견하자 그들의 놀람은 더욱 컸다. 그 놀란 속에서 계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손이 말했던 것이다.

『녀석잘고 20년만 사시오들. 해동명장(海東名將) 홍장군의 이름을 듣게 될 것이오』

모든 종이위의 生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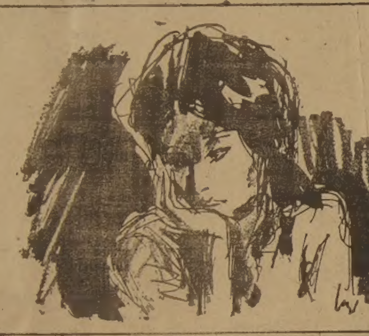
그림자놀이 ⑧1

趙善 作
禹慶熙 畵

순식간에 그는 너무도 깊이 잠든 느낌이었다. 그래도 나는 누적된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았으며, 그위로 무거운 피로감까지 겹쳐졌다.

나는 벽에 등을 조금 기대었다. 그리고 무릎을 세우고 앉아 무릎위에 올려 놓은 두팔에 턱을 괴고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푸른색의 흐린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은 데드 마스크처럼 차갑게 얼어 붙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긴장과 분노와 연민과 고통등, 그의 표정 하나 하나가 나에게 카멜레온같은 변화 무쌍한 장을 불러일으켰던 얼굴이었다. 그런 그의 얼굴이 마침내는 평화롭게 잠들었으며, 나에게 마저도 순백(純白)의 평화를 끼얹어 오는 느낌이었다.

잠시 나는 쉽게도 이루었구나라는 느낌이었다. 그의 여행을 뒤따라 나설 때 나는 이렇게 쉽게 기회가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랫동안 여러 날을 보내며 어렵사리 기회를 포착하리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은 어느 이름없는 시골의 허름한 여인숙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가 그런 여인숙에 드는 것을, 포플러 따위가 키를 우쭉세우고 있는 농로길 같은 데서 멀리 눈여겨 보아 두었다가 그가 깊이 잠든 깊은밤에 내가 여인숙에 찾아들고, 그리고 뭐의 계획을 실천하리라고 막연히 상상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행의 첫날밤에, 비록 서울의 변두리에서 그를 뒤쫓아 나섰던 일이 까마득한 옛일이기나 한 것처럼 느껴지기는 했어도 분명히 여행의 첫날 밤에 나는 그의 잠든 방에 침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의 옆에 눕는 일은 팔을 뻗기에 달려 있었다. 나는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던가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가 귀가하시기 전에 아버지 방에 침입하셨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침대에서 한숨 주무셨다고 말씀하셨다. 아마 본격적으로 잠드신 것은 아닐 것이다. 귀가하신 아버지의 기척에 잠에서 깨신 어머니는 얼핏 침대밑으로 숨으셨고, 아버지가 잠드시자 어머니는 살그머니 침대 위의 아버지 곁에 누우셨던 것이다. 아버지께서 깨시기 전까지 두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물론 나도 분명한 상상을 멈추고 싶지않으며 나 역시 그의 옆에 나란히 눕는 일 이상으로 그의 몸에 대해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할 생각은 없었다. 어머니께서 옷을 벗으셨을까 하는문제도 나는 상상해 보았는데 그러셨을 것 같지가 않았으며, 나 역시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 문득 나는 그가 도어의 실린더를 잠갔을까 하는 문제에 생각이 미쳤다. 종업원여자가 나간 이래 나는 그런 향을 들은 기억이 없었다. 나는 살그머니 일어나 도어쪽으로 갔다. 과연 도어는 잠겨 있지 않았으며 나는 손잡이 가운데의 버튼을 가만히 눌렀다. 예리한 금속음이 잠깐 방안에 울렸다. 이것으로 나는 종업원 여자등 외부의 침입자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으며, 목표에 한결 가까와진 느낌이었다. 나는 다시 그의 곁으로 갔다. 이번에는 [illegible] 그가 덮은 캐시미어 이불자락에 나는 발부터 살그머니 밀어 넣었다. [illegible] 잠깐 그의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느낌이어서 나는 얼른 [illegible] 팔을 거두어 들었다. 그런데 그때 전화기의 벨이 울린 것이다.



SUREKILLER

ZAP

바퀴벌레, 개미, 벼룩, 좀벌레등 각종벌레.
Powder or Spray적은비용, 사용간편, 사전예방용, 100% 효과보장.
각 한국식품 판매처 또는 Ont. 전역 공급 Retail store경영하시는분 주문 요망.
☎ : 255-6849, 255-0713

구 인

20세 전후한 남녀
풀타임 캐쉬어 구함.
☎ : 742-0800

지렁이잡이 원함(유경험자)
힌치와 웨스톤지역, 최고가격
☎ : 243-7736 미스터 리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스토아 매니저 구함
$15,000, 보증금 요함, 수입 $3,000 개런티
☎ : 635-9585

캐비넷 만드는데 경험있는 분 구함
좋은 봉급과 조건
☎ : 416-742-7725

버라이어티 스토아에서 일할
경험있는 남자헬퍼 구함
☎ : 532-6160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 일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지불.
우수한 이익. 600 SPEEDROCK DR. DOWNSVIEW
☎ : 630-7777 LOUIS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니저구함 :
$10,000보증금 요함
☎ : 745-1255

할머니 돌봐 주실분 구함
오후12시부터 밤10시)
☎ : 531-7556

스토아 여자 캐쉬어 구함
(토, 일요일, 12~8시까지)
☎ : 921-0624

입주하셔서 애기 봐 주실분 구합니다 :
미세스 하
☎ 665-4835

급 구
메네저 구함, 바쁜 다운타운 지역.
6시이후 전화요망
☎ : 598-2546 미스타 고

재봉사 구함 (남·여)
•약간명 •유경험자 •좋은 대우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재봉사 구함(LADIES' SPORTSWEAR)
번통, 오바로꾸, 단, 풀타임, 파타임 or PIECE WORK
292 PARLIAMENT ST. AT DUNDAS ☎ : 362-2300

GENERAL FACTORY HELPER NEEDED
딕씨×401지역 미시사가
공장에서 일할 분 구합니다.
☎ : 625-1433

매매및 양도

벡커 프랜차이즈 스토아 매매
2372 WESTON RD.
☎ : 249-3546

프랜차이즈 벡커스토아 매매 :
1169 WOODBINE AVE.
☎ : 423-7939

밀크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도
노력하면 발전성이 있음
☎ : 783-6039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주매상 $4500이상, 리스3년+5년 옵션
☎ : 769-5956 3261 DUNDAS W.

①번잡한 다운타운 지역에 자리잡은 버라이어티스토아
주매상 $3,500, ASKING $29,000
②하드웨어스토아(DANEFORTH AVE.)
주매상 $2,500, ASKING $39,000+스탁
CALL : TRUSTWELL REALTY REALTOR
☎ : 361-1226

가게급매 :
주매상 $5400(로타리오 있음) 리스3년.
☎ : 222-2848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ASKING $20,000+스탁
☎ : 844-2922 392 KEER ST., OAKVILLE

그로서리 스토아및 빌딩 팝니다 : 이층 벽돌 건물이며 장래성이 많고 TUCK SHOP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음.
☎ : 781-7080 458 CALEDONIA RD.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주매상 $6200~$6500, 렌트 $590 (스토아+2베드룸아파트)+로타리오 기계, 리스86년까지 스탁은 몰개지로 가능 사정에 의해 급매코자 함 3884 BLOOR W.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가게 팝니다 :
아파트 코너에 있음
☎ : 252-7982

성업중인 햄버거 샵 급매
다운다운지역
☎ : 535-2804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가장 적당한 Offer를 주시는 분에게 팔고자 함.
☎ : 465-4003

FISH & CHIPS스토아매매 : 다운타운내에 좋은위치
리스5년, 렌트 $700, 오전10~7 : 30(월~금)
ASKING $45000 ☎ : 366-1332

번잡한 노스·욕 몰안에 있는 스토아 매매
신선한 쥬스,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Fast Food취급
자동기구 완전 구비되었음, 남편의 직장전근상
매매코자 함. 그로스 Profit : 주매상 $1500의 73%
Asking : $40,000 ☎ : 249-3914
(CALL ONLY 7 : 30PM to 10 : 00PM) ZARINA

번잡한 PLAZA안에 완전설비된 인컴 택스 서비쓰
600명 이상의 고정 외뢰인 있음. 정년 퇴직상 팔고자함.
LOW렌트, 좋은 리스, Asking $6,500
(모든 가구와 사무실 장비포함) ☎ : 244-9987

집·방세·하숙

1 베드룸 아파트먼트 FOR렌트
킬과 던다스 지역
☎ : 743-4787, 960-6263 미스타 최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퍼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히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크 리 스 티 미 용 실 (크리스티 서브웨이 건너편)
남녀 노소 커트, 셋트, 퍼마 전문
727 Bloor St. W. (B) 533-2569, (R) 967-1518 미세스 박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자동차, 집유리 설치, Repair합니다.
보험청구등 자동차 실내장치도 합니다.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3-0656(B), 493-7185(R)
정 해 문(힌치×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저먼트 & 각종풀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각종 꽃종류, 조화, Plants취급. *꽃꽂이,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어디든지 배달가능합니다.
☎ : 769-0609 여 정 용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 •소파 •체어 •타일 •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악기점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8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222-4682
SIMSON'S의 써비스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회사, 조율
액숀조정, 건반, 캐비넷칠, 중고매매. 김 수 용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각종냉장고 (가정용및 상업용)
ELECTRIC STOVE수리전문
☎ : 466-4304, 469-3341 박 기 창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자동차수리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연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6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기 타

●여자용 로렉스 시계 18k Gold Brand New
●카메라 MINOLTA ×G1 Brand New
50mm F1.8, 135mm F3.5, 35mm F2.8
AUTO WINDER, AUTO FLASH 118X,
카메라 가방
☎ : 533-2364 미세스 김

한국미술공예 원함
당신이 한국 미술품이나 공예품의 수입상이거나, 도매, 소매를 취급하는 분이라면 새로운 국제시장에의 비즈네스 길을 열지 않으시렵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래 전화로 연락을 바랍니다.
☎ : (416) 598-1414 SYLVIA ZINGRONE

미싱일 할 수 있는 가게나, 지하실 구함
5시이후 연락요망
☎ : 247-0785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일간발행 기념

교포위문대공연!!

●최고의 인기 정상가수 총출연 ●최고의 가수진 ●최고의 캄보밴드 ●최고의 코메디안

●최병걸—난 진정 몰랐었네

●최 헌—가을비 우산속/앵두

●윤시내—열애와 고목의 주인공

●희자매—
아리랑 내님아/실버들

◎일 시 : 1981년 7월3일(금) 7시30분

◎장 소 : CENTRAL TECHNICAL SCHOOL
(BATHURST & HARBORD)

◎입장권 : $10.00균일

◎예매처 : 각식품점및 본사

◎주 최 : 한국일보사